

2017년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도조사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CONTENTS

목 차

제 1 장 조사개요	1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9
제 3 장 조사결과 분석	17
Ⅰ. 서울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19
Ⅱ.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경험, 서비스 이용도	23
Ⅲ. 서울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31
Ⅳ. 서울시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35
Ⅴ. 서울시 정신건강 브랜드 인지도	41
Ⅵ.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정책 요구도	45
부록 1. 설문지	
부록 2. 결과표	

2017년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보고서



제1장 조사개요

I.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 및 관련 서비스 이용실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격년으로 서울시민 정신건강인식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이용 추이를 분석해 서울시의 정신보건정책 수립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 본 조사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인지도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경험, 서비스 이용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건강 서비스 및 브랜드 인지도, △정신건강정책 요구도 등을 6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조사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Key Research Objectives

1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경험, 서비스 이용도 파악

-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

2 서울시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파악

- 정신질환자 수용성 정도

3 서울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및 브랜드 인지도 파악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지도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의향
- 블루터치 인지도 및 인지경로

4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정책 요구도 파악

-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
-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

II. 조사 내용

차원	내용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정신적 건강상태(주관적 경험)
	신체적 건강상태(주관적 경험)
정신건강 문제경험, 서비스 이용도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
	정신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받은 상담기관
서울시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의향
서울시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질환자 수용도 1)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 2)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 3)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서울시 정신건강 브랜드 인지도	블루터치 인지도
	블루터치 인지경로
서울시민 정신건강정책 요구도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

III.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남녀
표본크기	1,000명
표집방법	2017년 8월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함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RDD 전화조사(CATI) * RDD: Random Digit Dialing ¹⁾ *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응답률	유무선 통합 응답률 15.2% (유선전화 응답률 5.7%, 무선전화 응답률 26.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편집(Editing) 및 부호화(Coding) 과정을 거쳐서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해 분석
조사기간	2017년 9월 14일 ~ 9월 17일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 1) RDD(Random Digit Dialing):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는 전화여론조사 방법으로 최근 휴대전화가 보편화되고 유선전화 보급률이 감소되자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는 번호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표집틀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보완할 수 있음.

IV. 응답자 특성

구분	전체	사례수(명)	비율(%)
		(1,000)	100.0
성별	남자	(496)	49.6
	여자	(504)	50.4
연령	15-19세	(58)	5.8
	20대	(200)	20.0
	30대	(217)	21.7
	40대	(226)	22.6
	50대	(213)	21.3
	60-64세	(86)	8.6
거주권역	도심권	(57)	5.7
	동북권	(312)	31.2
	서북권	(120)	12.0
	서남권	(295)	29.5
	동남권	(216)	21.6
학력	고졸 이하	(211)	21.1
	대학 재학	(87)	8.7
	대졸 이상	(702)	70.2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0.2
	자영업자	(119)	11.9
	판매/영업/서비스직	(66)	6.6
	노무/운송/기능직	(40)	4.0
	사무직	(267)	26.7
	관리/전문직	(106)	10.6
	전업주부	(158)	15.8
	학생	(126)	12.6
	무직/은퇴/기타	(116)	11.6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	2.6
	100-199만원	(66)	6.6
	200-299만원	(129)	12.9
	300-399만원	(156)	15.6
	400-499만원	(152)	15.2
	500~599만원	(131)	13.1
	600~699만원	(78)	7.8
	700만원 이상	(192)	19.2
	모름/무응답	(70)	7.0
경제수준	상	(75)	7.5
	중	(753)	75.3
	하	(172)	17.2
혼인상태	미혼	(75)	7.5
	기혼	(753)	75.3
	기타	(172)	17.2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607)	60.7
	보통	(337)	33.7
	좋지 않은 편	(56)	5.6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454)	45.4
	보통	(404)	40.4
	좋지 않은 편	(142)	14.2

일 러 두 기

- 본 보고서의 데이터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응답 사례 수가 작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 보고서의 내용 중 정성적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는 설문지 응답 항목의 순서와 별도로 빈도가 높은 항목 위주로 정렬하여 편집하였음.



제2장 조사결과 요약

I. 서울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1. 정신적 건강상태

- 본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 + 대체로 좋은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60.7%로,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자가 측정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표 2-1-1〉 정신적 건강상태

(Base: 전체, 단위: %)

구분	매우 좋다	대체로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서울 시민	23.5	37.2	33.7	4.4	1.2

2. 신체적 건강상태

-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 + 대체로 좋은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45.4%로, 서울 시민 10명 중 5명은 자가 측정한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표 2-1-2〉 신체적 건강상태

(Base: 전체, 단위: %)

구분	매우 좋다	대체로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서울 시민	13.6	31.8	40.4	12.9	1.3

II.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경험, 서비스 이용도

1.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라는 응답 비율이 24.6%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15.4%),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14.7%),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1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지난 1년간 정신적인 문제를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51.7%임.

〈표 2-2-1〉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중복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심각한 스트레스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자제할 수 없는 분노표출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자살 생각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문제	환청, 환시, 망상적 생각	지난 1년간 정신적인 문제를 겪지 않았다
서울 시민	24.6	15.4	14.7	12.8	11.0	10.1	7.0	2.8	1.6	0.6	51.7

2.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

-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의 대처방법으로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함’이라는 응답 비율이 47.9%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함’(27.3%), ‘정신과 등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음’(19.2%), ‘정신의료기관 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음’(12.3%)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2〉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

(Base: 전체, 단위: %)

구분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함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함	정신과 등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음	정신의료기관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음	종교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음	술을 마신다
서울 시민	47.9	27.3	19.2	12.3	10.3	2.7

- 특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정신의료기관 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심리지원센터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상담기관’ 및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상담기관’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Ⅲ. 서울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1.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지도

- 보건소나 구청 등에 위치하여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인지’(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한다는 응답 비율은 42.7%인 반면, ‘비인지’(전혀 모른다) 응답 비율은 57.3%임.

〈표 2-3-1〉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지도

(Base: 전체, 단위: %)

구분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서울 시민	4.7	13.2	24.8	57.3

2.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의향

- 정신보건센터 혹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스트레스, 우울증, 음주,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등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을 위하여 ‘이용 의향이 있다’(꼭 이용하고 싶다 + 이용할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은 73.9%이며, 특히 ‘꼭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13.6%임.

〈표 2-3-2〉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의향

(Base: 전체, 단위: %)

구분	꼭 이용하고 싶다	이용할 것 같다	별로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서울 시민	13.6	60.3	21.1	5.0

Ⅳ. 서울시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1. 정신질환자 수용도

- 정신질환자 수용성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 비율이 91.3%로, 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88.5%),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74.6%) 순으로 나타남.

〈표 2-4-1〉 정신질환자 수용도

(Base: 전체, 단위: %)

구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무응답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	52.1	39.2	6.3	1.0	1.4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	46.1	42.4	8.3	1.8	1.4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27.1	47.5	19.0	4.8	1.6

Ⅴ. 서울시 정신건강 브랜드 인지도

1. 블루터치 인지도

- 서울시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결핍되어 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블루터치”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음. 이러한 서울시의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7.7%인 반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91.6%임.

〈표 2-5-1〉 블루터치 인지도

(Base: 전체, 단위: %)

구분	들어본 적이 있다	들어본 적이 없다	모름/무응답
서울 시민	7.7	91.6	0.7

- 블루터치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인지 경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스마트폰/테블릿 PC 등 휴대기기를 이용한 인터넷’이라는 응답이 35.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라디오’(19.5%), ‘라디오’(15.6%), ‘홍보책자/팜플렛/유인물’(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5-2〉 블루터치 인지경로(중복응답)

(Base: 블루터치 인지자, 단위: %)

구분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휴대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라디오	라디오	홍보책자/팜 플렛/ 유인물	전광판/ 지하철/ 버스/간판 등 옥외광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	보도자료	기타
서울 시민	35.1	19.5	15.6	11.7	9.1	7.8	6.5	11.7

Ⅵ.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정책 요구도

1.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기관을 설치’라는 응답 비율이 36.5%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표 2-6-1〉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

(Base: 전체, 단위: %)

구분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기관을 설치	신체건강검진처 럼 보건소 등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시행	스스로 정신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검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음악회, 공연 등 문화 활동을 지원	정신건강 정보를 얻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시민강 좌를 개최	기타
서울 시민	36.5	27.6	14.7	14.6	4.3	2.3

2.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

- 서울시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정신질환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정책으로 ‘정신질환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응답 비율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2〉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

(Base: 전체, 단위: %)

구분	정신질환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정신과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등 각종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	정신과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입원시설이 아닌 거주지 내 재활기관을 이용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기관을 확충	정신과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인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기타
서울 시민	33.9	21.3	19.9	15.9	7.0	2.0



제3장 조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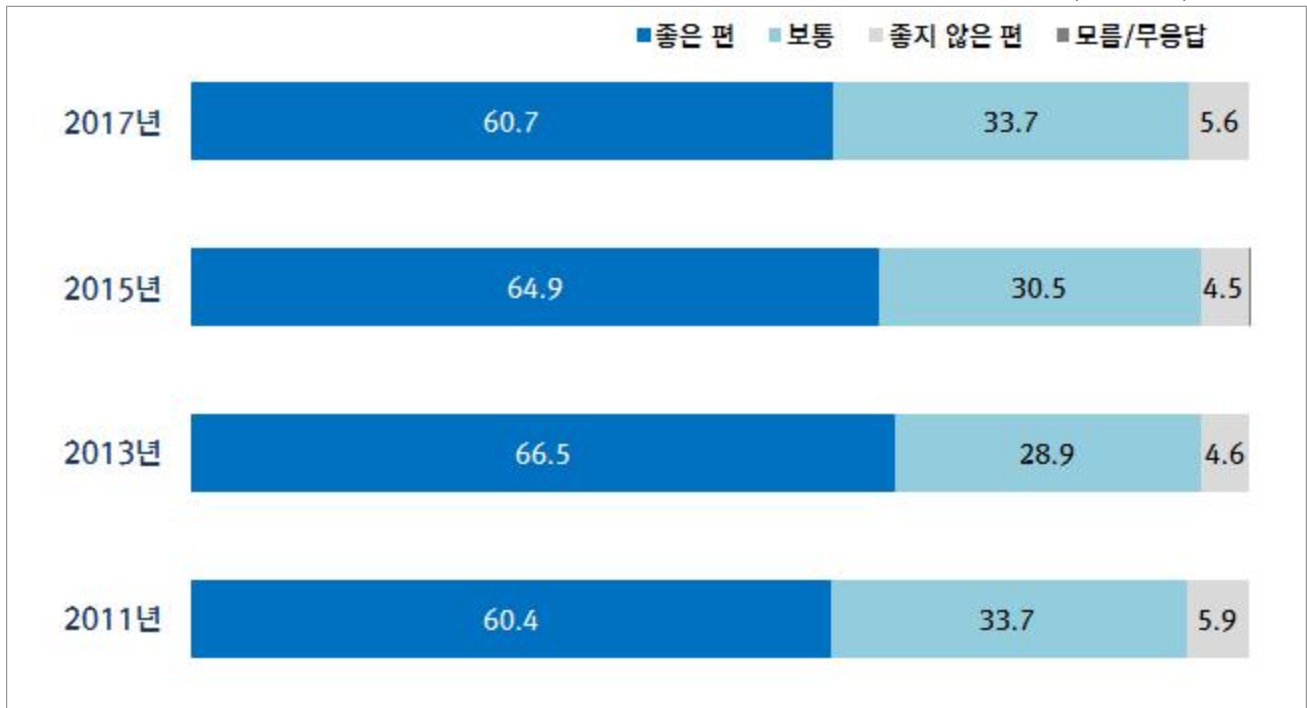
I. 서울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1. 정신적 건강상태

문]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선생님의 정신적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3-1-1〉 정신적 건강상태(주관적 경험)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본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 + 대체로 좋은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60.7%인 반면, ‘나쁘다’(매우 나쁘다 + 대체로 나쁜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5.6%임.
-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자가 측정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정신적 건강상태는 2011년에는 60.4%, 2013년에는 66.5%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로는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2017년 조사에서 정신적 건강상태는 60.7%로, 2015년 대비 4.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 + 대체로 좋은 편이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0.7%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신체적 건강태가 좋을수록 높으며, △남자(62.9%), △15-19세(74.1%), △서북권(64.2%), △대학 재학(66.7%), △학생(70.6%), △700만원 이상(70.3%), △미혼(78.7%)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1-1〉 정신적 건강상태(주관적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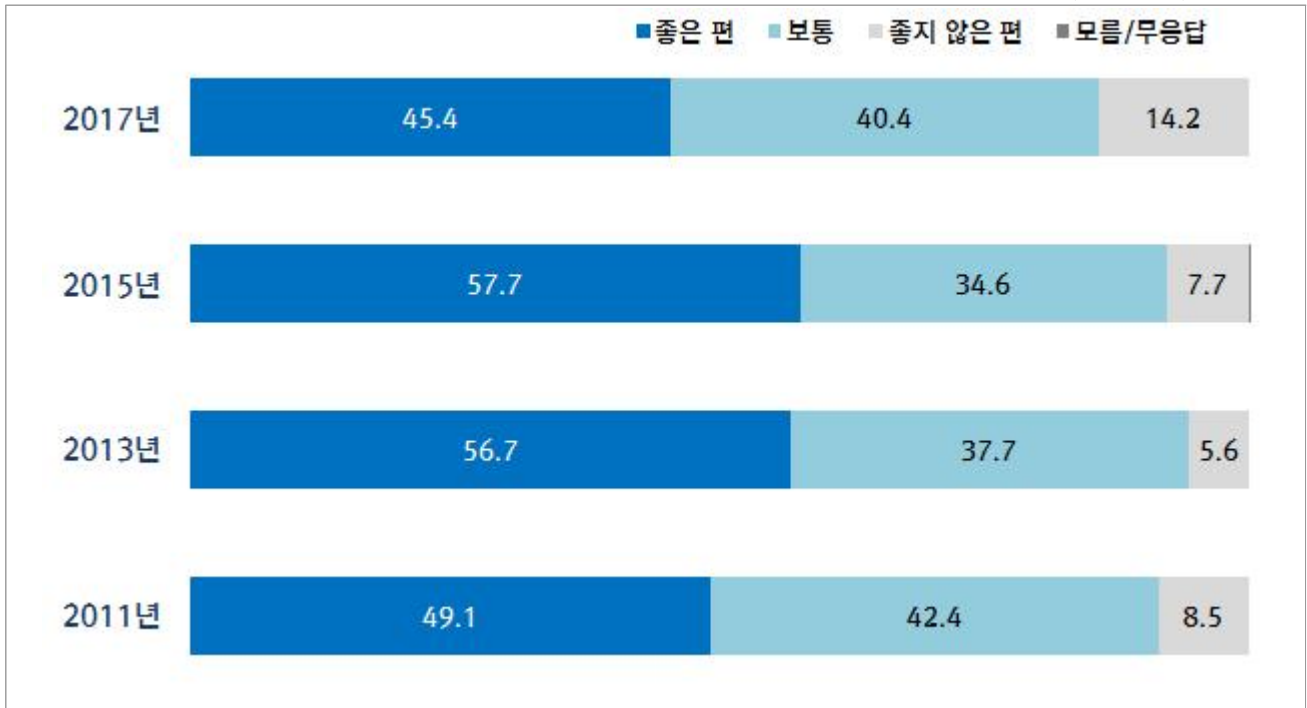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매우 좋다	대체로 좋은 편이다	①+②	보통이다	대체로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④+⑤	계
▣ 전체 ▣	(1,000)	23.5	37.2	60.7	33.7	4.4	1.2	5.6	100.0
성별									
남자	(496)	26.6	36.3	62.9	32.3	3.6	1.2	4.8	100.0
여자	(504)	20.4	38.1	58.5	35.1	5.2	1.2	6.3	100.0
연령									
15-19세	(58)	27.6	46.6	74.1	20.7	5.2	0.0	5.2	100.0
20대	(200)	20.5	38.5	59.0	37.5	2.5	1.0	3.5	100.0
30대	(217)	20.7	35.9	56.7	34.1	7.8	1.4	9.2	100.0
40대	(226)	20.8	35.8	56.6	38.1	4.0	1.3	5.3	100.0
50대	(213)	26.3	37.6	63.8	31.9	2.3	1.9	4.2	100.0
60-64세	(86)	34.9	33.7	68.6	25.6	5.8	0.0	5.8	100.0
지역									
도심권	(57)	29.8	26.3	56.1	31.6	10.5	1.8	12.3	100.0
동북권	(312)	22.4	39.4	61.9	33.0	3.5	1.6	5.1	100.0
서북권	(120)	21.7	42.5	64.2	29.2	5.8	0.8	6.7	100.0
서남권	(295)	21.7	36.6	58.3	36.3	4.7	0.7	5.4	100.0
동남권	(216)	26.9	34.7	61.6	34.3	2.8	1.4	4.2	100.0
학력									
고졸 이하	(211)	27.5	31.8	59.2	34.1	5.2	1.4	6.6	100.0
대학 재학	(87)	18.4	48.3	66.7	31.0	2.3	0.0	2.3	100.0
대졸 이상	(702)	22.9	37.5	60.4	33.9	4.4	1.3	5.7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자영업자	(119)	22.7	32.8	55.5	38.7	3.4	2.5	5.9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6)	21.2	24.2	45.5	50.0	4.5	0.0	4.5	100.0
노무/운송/기능직	(40)	25.0	30.0	55.0	32.5	10.0	2.5	12.5	100.0
사무직	(267)	24.3	36.7	61.0	34.5	3.4	1.1	4.5	100.0
관리/전문직	(106)	32.1	34.9	67.0	27.4	2.8	2.8	5.7	100.0
전업주부	(158)	21.5	43.0	64.6	29.1	5.7	0.6	6.3	100.0
학생	(126)	23.0	47.6	70.6	24.6	4.8	0.0	4.8	100.0
무직/은퇴/기타	(116)	19.0	36.2	55.2	38.8	5.2	0.9	6.0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	11.5	26.9	38.5	53.8	7.7	0.0	7.7	100.0
100-199만원	(66)	19.7	27.3	47.0	36.4	10.6	6.1	16.7	100.0
200-299만원	(129)	21.7	39.5	61.2	34.9	2.3	1.6	3.9	100.0
300-399만원	(156)	21.8	33.3	55.1	39.1	5.1	0.6	5.8	100.0
400-499만원	(152)	25.0	40.1	65.1	30.3	4.6	0.0	4.6	100.0
500-599만원	(131)	20.6	37.4	58.0	38.9	1.5	1.5	3.1	100.0
600-699만원	(78)	16.7	44.9	61.5	34.6	3.8	0.0	3.8	100.0
700만원 이상	(192)	32.3	38.0	70.3	22.9	5.2	1.6	6.8	100.0
모름/무응답	(70)	24.3	37.1	61.4	35.7	2.9	0.0	2.9	100.0
경제수준									
상층	(75)	38.7	40.0	78.7	21.3	0.0	0.0	0.0	100.0
중하	(753)	23.0	38.8	61.8	33.6	3.9	0.8	4.6	100.0
하	(172)	19.2	29.1	48.3	39.5	8.7	3.5	12.2	100.0
혼인상태									
미혼	(75)	38.7	40.0	78.7	21.3	0.0	0.0	0.0	100.0
기혼	(753)	23.0	38.8	61.8	33.6	3.9	0.8	4.6	100.0
기타	(172)	19.2	29.1	48.3	39.5	8.7	3.5	12.2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07)	38.7	61.3	100.0	0.0	0.0	0.0	0.0	100.0
보통	(337)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좋지 않은 편	(56)	0.0	0.0	0.0	0.0	78.6	21.4	100.0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54)	40.7	41.2	81.9	16.1	1.5	0.4	2.0	100.0
보통	(404)	10.1	39.1	49.3	45.5	4.7	0.5	5.2	100.0
좋지 않은 편	(142)	6.3	19.0	25.4	56.3	12.7	5.6	18.3	100.0

2. 신체적 건강상태

문]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선생님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3-1-2〉 신체적 건강상태(주관적 경험)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 + 대체로 좋은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45.4%인 반면, ‘나쁘다’(매우 나쁘다 + 대체로 나쁜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14.2%임.
- 서울시민 10명 중 5명은 자가 측정한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신체적 건강상태는 2011년 49.1%, 2013년 56.7%, 2015년 57.7%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그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2017년 조사에서 신체적 건강상태는 45.4%로, 2015년 대비 1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 + 대체로 좋은 편이다)는 응답의 전체 응답자의 45.4%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남자(47.8%), △15-19세(65.5%), △도심권(50.9%), △대학 재학(60.9%), △학생(65.9%), △700만원 이상(52.6%), △미혼(68.0%)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1-2〉 신체적 건강상태(주관적 경험)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매우 좋다	대체로 좋은 편이다	①+②	보통이다	대체로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④+⑤	계
▣ 전체 ▣	(1,000)	13.6	31.8	45.4	40.4	12.9	1.3	14.2	100.0
성별									
남자	(496)	17.3	30.4	47.8	39.1	12.3	0.8	13.1	100.0
여자	(504)	9.9	33.1	43.1	41.7	13.5	1.8	15.3	100.0
연령									
15~19세	(58)	34.5	31.0	65.5	27.6	6.9	0.0	6.9	100.0
20대	(200)	16.5	38.0	54.5	29.5	15.0	1.0	16.0	100.0
30대	(217)	15.2	29.5	44.7	42.9	12.0	0.5	12.4	100.0
40대	(226)	9.3	27.9	37.2	49.1	12.4	1.3	13.7	100.0
50대	(213)	9.4	31.9	41.3	43.2	13.1	2.3	15.5	100.0
60~64세	(86)	10.5	33.7	44.2	38.4	15.1	2.3	17.4	100.0
지역									
도심권	(57)	14.0	36.8	50.9	42.1	5.3	1.8	7.0	100.0
동북권	(312)	13.1	29.8	42.9	42.0	13.5	1.6	15.1	100.0
서북권	(120)	15.0	34.2	49.2	36.7	13.3	0.8	14.2	100.0
서남권	(295)	11.9	31.2	43.1	43.1	12.5	1.4	13.9	100.0
동남권	(216)	15.7	32.9	48.6	36.1	14.4	0.9	15.3	100.0
학력									
고졸 이하	(211)	15.2	28.4	43.6	40.3	13.3	2.8	16.1	100.0
대학 재학	(87)	18.4	42.5	60.9	29.9	9.2	0.0	9.2	100.0
대졸 이상	(702)	12.5	31.5	44.0	41.7	13.2	1.0	14.2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50.0	0.0	50.0	50.0	0.0	0.0	0.0	100.0
자영업자	(119)	10.1	34.5	44.5	46.2	7.6	1.7	9.2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6)	13.6	25.8	39.4	45.5	13.6	1.5	15.2	100.0
노무/운송/기능직	(40)	20.0	20.0	40.0	42.5	17.5	0.0	17.5	100.0
사무직	(267)	13.9	30.0	43.8	42.3	13.1	0.7	13.9	100.0
관리/전문직	(106)	11.3	36.8	48.1	38.7	12.3	0.9	13.2	100.0
전업주부	(158)	9.5	34.8	44.3	40.5	13.3	1.9	15.2	100.0
학생	(126)	25.4	40.5	65.9	25.4	8.7	0.0	8.7	100.0
무직/은퇴/기타	(116)	8.6	23.3	31.9	44.0	20.7	3.4	24.1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	15.4	11.5	26.9	23.1	34.6	15.4	50.0	100.0
100~199 만원	(66)	4.5	25.8	30.3	47.0	15.2	7.6	22.7	100.0
200~299 만원	(129)	15.5	27.1	42.6	41.9	14.7	0.8	15.5	100.0
300~399 만원	(156)	13.5	30.8	44.2	43.6	11.5	0.6	12.2	100.0
400~499 만원	(152)	13.8	30.3	44.1	44.1	11.8	0.0	11.8	100.0
500~599만원	(131)	9.9	39.7	49.6	37.4	13.0	0.0	13.0	100.0
600~699만원	(78)	11.5	34.6	46.2	43.6	10.3	0.0	10.3	100.0
700만원 이상	(192)	18.2	34.4	52.6	36.5	9.9	1.0	10.9	100.0
모름/무응답	(70)	14.3	34.3	48.6	35.7	15.7	0.0	15.7	100.0
경제수준									
상	(75)	26.7	41.3	68.0	24.0	8.0	0.0	8.0	100.0
중	(753)	13.4	33.1	46.5	41.6	11.4	0.5	12.0	100.0
하	(172)	8.7	22.1	30.8	42.4	21.5	5.2	26.7	100.0
혼인상태									
미혼	(75)	26.7	41.3	68.0	24.0	8.0	0.0	8.0	100.0
기혼	(753)	13.4	33.1	46.5	41.6	11.4	0.5	12.0	100.0
기타	(172)	8.7	22.1	30.8	42.4	21.5	5.2	26.7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07)	20.6	40.7	61.3	32.8	5.8	0.2	5.9	100.0
보통	(337)	2.7	19.0	21.7	54.6	22.0	1.8	23.7	100.0
좋지 않은 편	(56)	3.6	12.5	16.1	37.5	35.7	10.7	46.4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54)	30.0	70.0	100.0	0.0	0.0	0.0	0.0	100.0
보통	(404)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좋지 않은 편	(142)	0.0	0.0	0.0	0.0	90.8	9.2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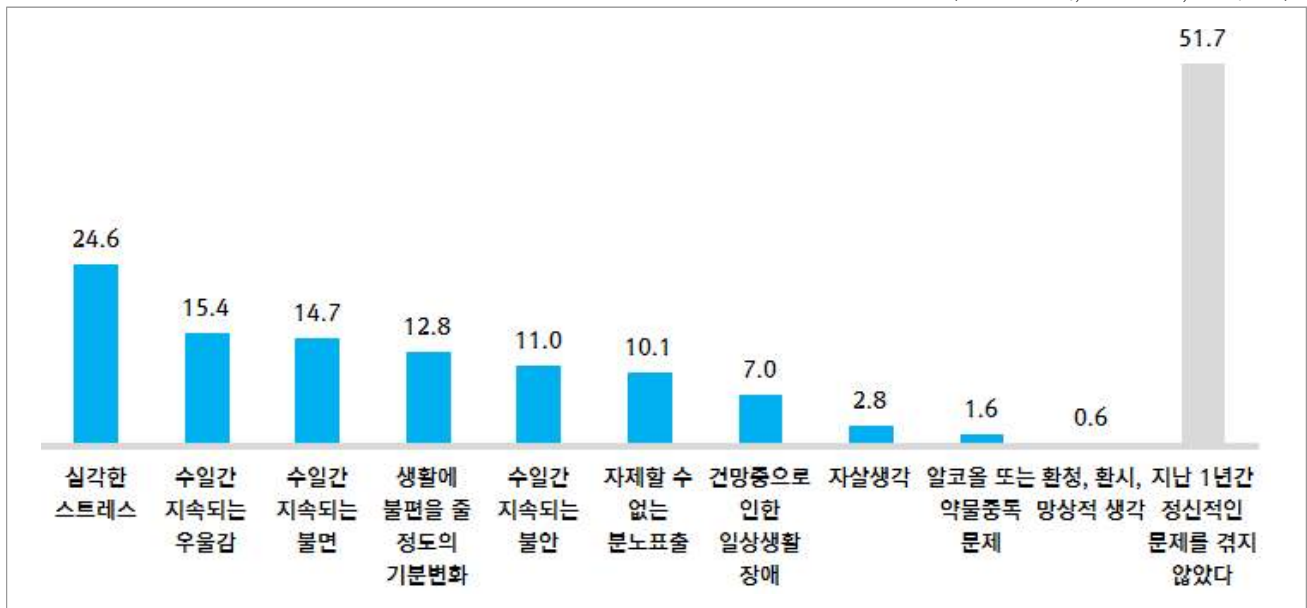
II.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경험, 서비스 이용도

1.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문] 다음 중 지난 1년간 선생님께서 경험한 정신적인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험하신 문제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그림 3-2-1〉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중복응답)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라는 응답 비율이 24.6%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15.4%),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14.7%),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1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지난 1년간 정신적인 문제를 겪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51.7%임.



응답자 특성별

-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각한 스트레스’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24.6%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30대(30.9%), △서북권(26.7%), △대졸 이상(26.2%), △100-199만원(40.9%)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한편, ‘지난 1년간 정신적인 문제를 겪지 않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1.7%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남자(53.4%), △60~64세(61.6%), △동남권(54.2%), △전업주부(56.3%), △미혼(61.3%)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2-1〉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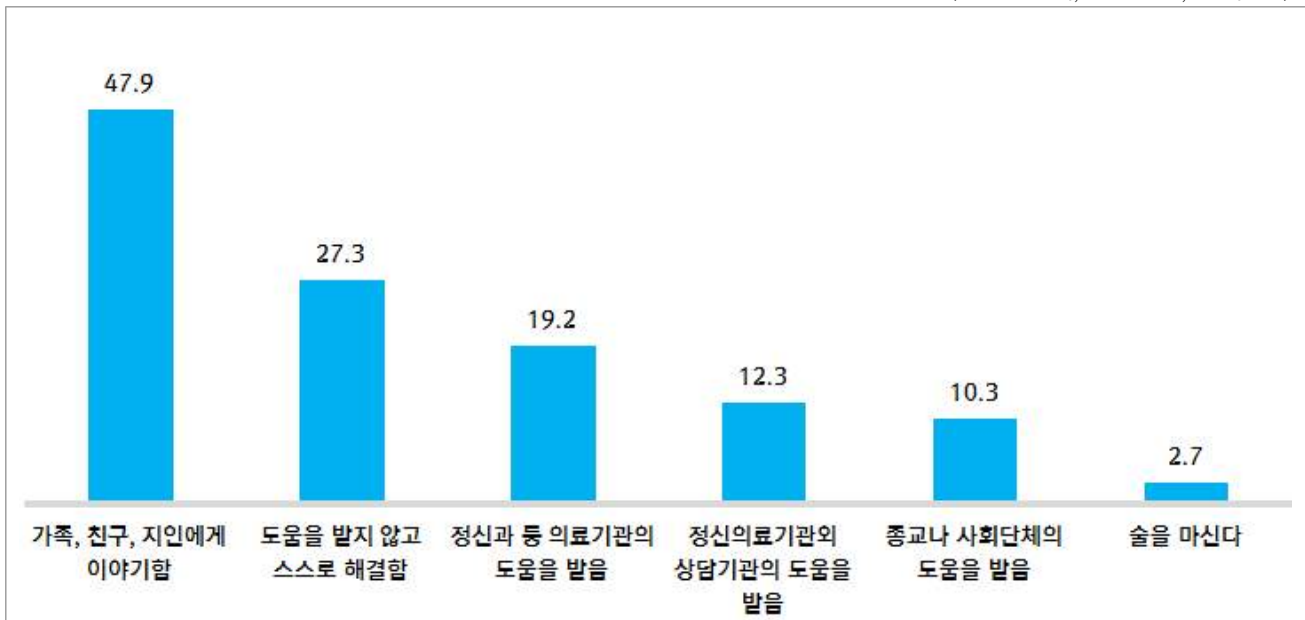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심각한 스트레스	수일간 지속 되는 우울감	수일간 지속 되는 불면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자제할 수 없는 분노표출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자살생각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문제	환청, 환시, 망상적 생각	지난 1년간 정신적인 문제를 겪지 않았다
■ 전체 ■	(1,000)	24.6	15.4	14.7	12.8	11.0	10.1	7.0	2.8	1.6	0.6	51.7
성별												
남자	(496)	25.6	11.7	12.5	11.5	11.5	9.5	7.3	3.4	2.2	0.6	53.4
여자	(504)	23.6	19.0	16.9	14.1	10.5	10.7	6.7	2.2	1.0	0.6	50.0
연령												
15~19세	(58)	19.0	13.8	10.3	10.3	6.9	5.2	3.4	0.0	0.0	3.4	53.4
20대	(200)	28.0	18.0	18.0	18.5	16.5	8.5	3.5	4.0	0.5	0.5	49.0
30대	(217)	30.9	17.1	14.7	14.3	12.0	12.4	9.2	3.2	0.5	0.5	46.1
40대	(226)	26.5	15.9	11.9	11.9	11.1	13.7	7.1	2.7	4.4	0.4	51.8
50대	(213)	20.7	11.7	14.6	10.8	8.0	8.5	8.5	3.3	1.4	0.5	55.4
60~64세	(86)	9.3	14.0	17.4	4.7	5.8	5.8	8.1	0.0	1.2	0.0	61.6
지역												
도심권	(57)	24.6	21.1	14.0	14.0	10.5	12.3	8.8	1.8	1.8	3.5	49.1
동북권	(312)	25.0	17.3	14.7	15.1	11.9	9.9	7.4	3.8	2.2	0.3	48.7
서북권	(120)	26.7	14.2	15.0	10.8	11.7	8.3	7.5	2.5	0.0	0.8	53.3
서남권	(295)	22.7	15.3	16.3	10.5	9.2	11.2	7.5	3.1	1.7	0.7	52.9
동남권	(216)	25.5	12.0	12.5	13.4	12.0	9.3	5.1	1.4	1.4	0.0	54.2
학력												
고졸 이하	(211)	21.8	13.3	18.0	10.0	9.0	5.7	6.2	2.4	1.4	0.9	50.2
대학 재학	(87)	18.4	20.7	26.4	21.8	17.2	9.2	6.9	2.3	1.1	0.0	51.7
대졸 이상	(702)	26.2	15.4	12.3	12.5	10.8	11.5	7.3	3.0	1.7	0.6	52.1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50.0	0.0	50.0	0.0	0.0	0.0	50.0	0.0	0.0	0.0	0.0
자영업자	(119)	21.8	13.4	17.6	6.7	13.4	7.6	10.9	3.4	4.2	0.8	54.6
판매/영업/서비스직	(66)	27.3	15.2	12.1	15.2	10.6	6.1	7.6	6.1	1.5	0.0	50.0
노무/운송/기능직	(40)	25.0	15.0	7.5	2.5	5.0	10.0	12.5	2.5	5.0	0.0	52.5
사무직	(267)	27.3	15.4	13.5	17.6	11.2	12.7	5.6	3.4	0.7	0.7	50.9
관리/전문직	(106)	33.0	17.9	15.1	11.3	11.3	14.2	9.4	1.9	0.9	0.0	42.5
전업주부	(158)	15.2	18.4	14.6	11.4	5.7	9.5	5.1	1.3	1.3	0.6	56.3
학생	(126)	21.4	16.7	19.0	18.3	15.1	6.3	4.8	2.4	0.0	1.6	51.6
무직/은퇴/기타	(116)	27.6	10.3	12.9	7.8	12.9	10.3	6.0	2.6	2.6	0.0	54.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	34.6	15.4	23.1	7.7	19.2	15.4	7.7	11.5	3.8	3.8	34.6
100~199 만원	(66)	40.9	27.3	27.3	21.2	19.7	15.2	9.1	3.0	4.5	3.0	33.3
200~299 만원	(129)	27.1	14.0	13.2	10.1	12.4	9.3	10.1	0.8	4.7	0.0	48.8
300~399 만원	(156)	20.5	17.3	14.7	14.1	9.0	10.9	7.1	2.6	0.6	0.0	54.5
400~499 만원	(152)	21.1	15.1	15.1	14.5	11.2	8.6	3.9	3.9	0.7	0.7	57.9
500~599만원	(131)	22.1	12.2	16.8	10.7	11.5	9.2	9.2	1.5	1.5	0.8	48.9
600~699만원	(78)	33.3	17.9	9.0	16.7	11.5	12.8	6.4	3.8	0.0	0.0	42.3
700만원 이상	(192)	25.0	15.6	13.0	10.4	9.4	10.4	6.3	3.1	1.0	0.5	55.7
모름/무응답	(70)	11.4	5.7	8.6	11.4	4.3	4.3	4.3	1.4	0.0	0.0	65.7
경제수준												
상	(75)	18.7	12.0	6.7	8.0	1.3	4.0	2.7	0.0	0.0	0.0	61.3
중	(753)	23.6	14.5	14.5	13.3	11.3	10.4	5.8	2.8	1.3	0.5	53.7
하	(172)	31.4	20.9	19.2	12.8	14.0	11.6	14.0	4.1	3.5	1.2	39.0
혼인상태												
미혼	(75)	18.7	12.0	6.7	8.0	1.3	4.0	2.7	0.0	0.0	0.0	61.3
기혼	(753)	23.6	14.5	14.5	13.3	11.3	10.4	5.8	2.8	1.3	0.5	53.7
기타	(172)	31.4	20.9	19.2	12.8	14.0	11.6	14.0	4.1	3.5	1.2	39.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07)	13.8	5.8	9.2	7.2	6.1	4.8	3.8	1.0	0.7	0.3	68.4
보통	(337)	36.5	25.2	19.9	18.4	15.4	16.3	10.7	4.7	3.0	0.3	30.3
좋지 않은 편	(56)	69.6	60.7	42.9	39.3	37.5	30.4	19.6	10.7	3.6	5.4	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54)	15.6	7.9	7.9	7.7	5.9	5.7	3.7	0.7	0.2	0.4	67.0
보통	(404)	27.5	17.3	16.6	13.4	13.6	10.6	9.4	3.0	2.0	0.7	46.3
좋지 않은 편	(142)	45.1	33.8	31.0	27.5	19.7	22.5	10.6	9.2	4.9	0.7	18.3

2.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

문] 선생님께서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대처방법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림 3-2-2〉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의 대처방법으로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함’이라는 응답 비율이 47.9%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함’(27.3%), ‘정신과 등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음’(19.2%), ‘정신의료기관 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음’(12.3%)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 ‘종교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음’(10.3%), ‘술을 마신다’(2.7%)의 순임.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함’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47.9%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여자(56.3%), △20대(60.0%), △동남권(51.4%), △대학 재학(57.5%), △학생(60.3%), △600~699만원(56.4%), △미혼(56.0%)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한편,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함’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27.3%로 학력 및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남자(36.1%), △60~64세(40.7%), △동북권(30.4%), △고졸 이하(33.6%), △100만원 미만(38.5%)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2-2〉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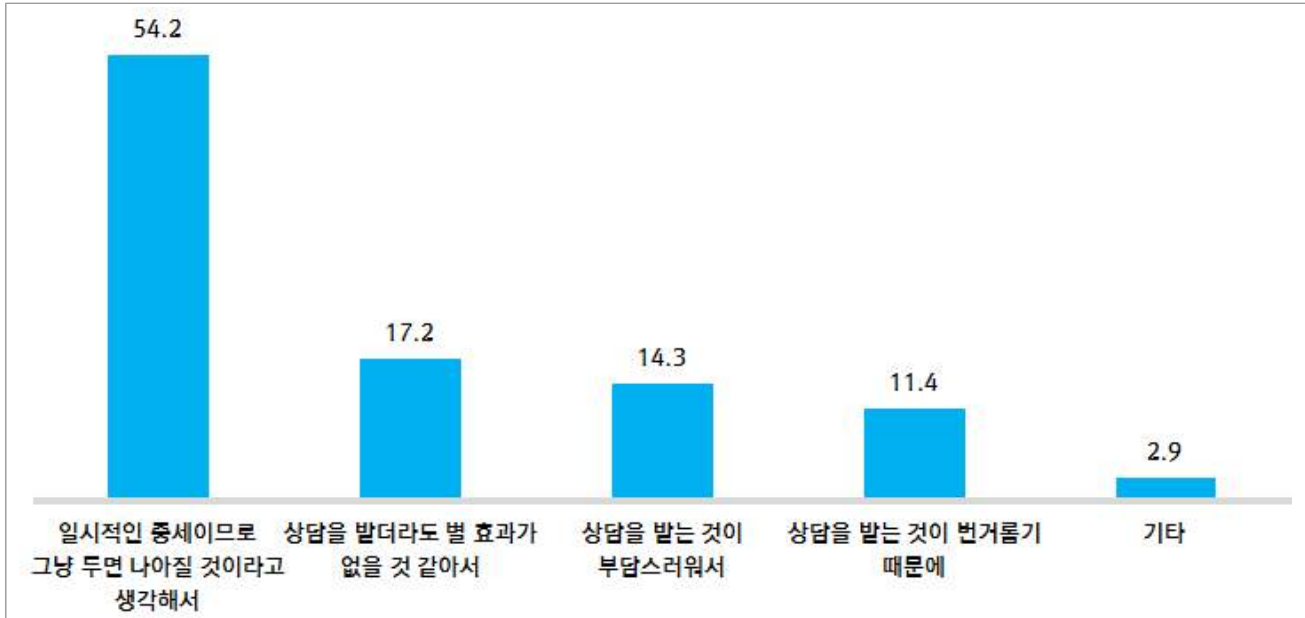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함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함	정신과 등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음	정신의료기관 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음	종교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음	술을 마신다
▣ 전체 ▣	(1,000)	47.9	27.3	19.2	12.3	10.3	2.7
성별							
남자	(496)	39.3	36.1	18.8	10.3	7.7	3.6
여자	(504)	56.3	18.7	19.6	14.3	12.9	1.8
연령							
15-19세	(58)	58.6	19.0	20.7	19.0	3.4	0.0
20대	(200)	60.0	22.0	15.0	17.0	9.5	2.5
30대	(217)	58.1	21.2	19.8	12.0	7.4	1.4
40대	(226)	48.2	26.5	21.2	11.1	9.7	3.5
50대	(213)	30.0	36.2	19.2	11.7	14.6	4.2
60-64세	(86)	30.2	40.7	20.9	2.3	15.1	2.3
지역							
도심권	(57)	42.1	29.8	19.3	14.0	15.8	5.3
동북권	(312)	46.2	30.4	15.7	10.9	8.3	2.6
서북권	(120)	46.7	28.3	19.2	15.0	11.7	1.7
서남권	(295)	48.8	24.7	23.1	13.6	10.2	1.7
동남권	(216)	51.4	25.0	19.0	10.6	11.1	4.2
학력							
고졸 이하	(211)	38.9	33.6	16.1	8.5	9.5	3.8
대학 재학	(87)	57.5	26.4	13.8	18.4	9.2	0.0
대졸 이상	(702)	49.4	25.5	20.8	12.7	10.7	2.7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0.0	50.0	0.0	0.0	50.0	0.0
자영업자	(119)	35.3	37.0	19.3	11.8	13.4	3.4
판매/영업/서비스직	(66)	47.0	27.3	21.2	13.6	9.1	3.0
노무/운송/기능직	(40)	37.5	32.5	20.0	5.0	10.0	7.5
사무직	(267)	53.2	27.3	18.7	9.4	7.1	1.9
관리/전문직	(106)	42.5	37.7	15.1	8.5	9.4	4.7
전업주부	(158)	53.8	14.6	22.8	13.3	16.5	1.9
학생	(126)	60.3	23.8	15.1	18.3	6.3	0.0
무직/은퇴/기타	(116)	37.1	26.7	22.4	17.2	11.2	4.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	34.6	38.5	15.4	15.4	26.9	3.8
100-199 만원	(66)	39.4	30.3	22.7	18.2	22.7	1.5
200-299 만원	(129)	42.6	31.0	21.7	10.9	8.5	1.6
300-399 만원	(156)	46.8	28.8	22.4	10.3	9.0	1.3
400-499 만원	(152)	47.4	23.7	23.7	12.5	14.5	2.0
500~599만원	(131)	55.0	19.8	16.8	10.7	4.6	8.4
600~699만원	(78)	56.4	28.2	12.8	7.7	9.0	1.3
700만원 이상	(192)	50.5	27.6	16.1	14.6	8.9	2.1
모름/무응답	(70)	44.3	30.0	15.7	14.3	5.7	2.9
경제수준							
상	(75)	56.0	24.0	14.7	13.3	6.7	4.0
중	(753)	48.5	27.1	19.5	12.5	9.7	2.8
하	(172)	41.9	29.7	19.8	11.0	14.5	1.7
혼인상태							
미혼	(75)	56.0	24.0	14.7	13.3	6.7	4.0
기혼	(753)	48.5	27.1	19.5	12.5	9.7	2.8
기타	(172)	41.9	29.7	19.8	11.0	14.5	1.7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07)	46.5	25.0	19.9	12.7	9.9	3.3
보통	(337)	50.7	29.7	17.5	11.6	10.1	2.1
좋지 않은 편	(56)	46.4	37.5	21.4	12.5	16.1	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54)	47.4	26.0	17.6	12.8	8.4	4.4
보통	(404)	48.5	28.5	20.0	11.6	10.9	1.5
좋지 않은 편	(142)	47.9	28.2	21.8	12.7	14.8	0.7

3. 정신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유

문]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림 3-2-3〉 정신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유

(Base: 정신질환 스스로 해결, N=273, 단위: %)



전체

-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상담을 받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7.2%), ‘상담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14.3%), ‘상담을 받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유에 대해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4.2%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여자(61.7%), △15-19세(63.6%), △도심권 및 서북권(각 64.7%), △대졸 이상(57.0%), △200-299만원(65.0%)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2-3〉 정신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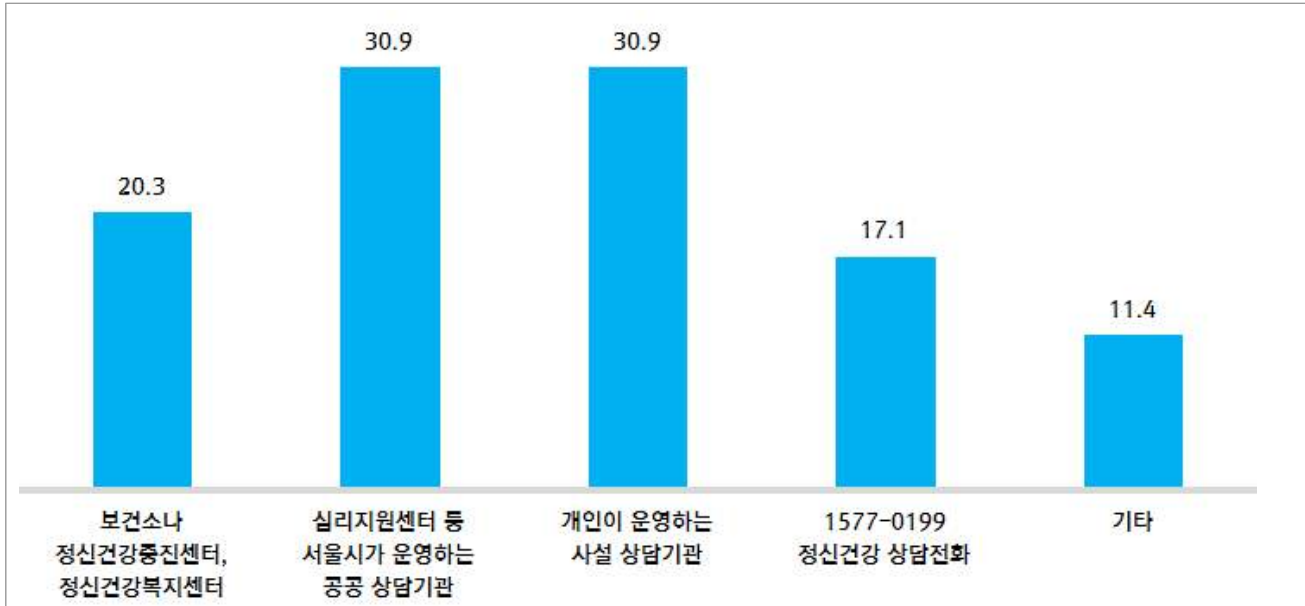
Base=정신질환 스스로 해결		사례수 (명)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담을 받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상담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상담을 받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기타	계
▣ 전체 ▣		(273)	54.2	17.2	14.3	11.4	2.9	100.0
성별	남자	(179)	50.3	20.7	15.1	11.2	2.8	100.0
	여자	(94)	61.7	10.6	12.8	11.7	3.2	100.0
연령	15-19세	(11)	63.6	9.1	9.1	9.1	9.1	100.0
	20대	(44)	61.4	9.1	13.6	15.9	0.0	100.0
	30대	(46)	45.7	17.4	17.4	19.6	0.0	100.0
	40대	(60)	56.7	16.7	8.3	13.3	5.0	100.0
	50대	(77)	49.4	23.4	15.6	7.8	3.9	100.0
	60-64세	(35)	60.0	17.1	20.0	0.0	2.9	100.0
지역	도심권	(17)	64.7	23.5	0.0	5.9	5.9	100.0
	동북권	(95)	51.6	14.7	16.8	11.6	5.3	100.0
	서북권	(34)	64.7	17.6	8.8	5.9	2.9	100.0
	서남권	(73)	53.4	20.5	13.7	11.0	1.4	100.0
	동남권	(54)	50.0	14.8	18.5	16.7	0.0	100.0
학력	고졸 이하	(71)	47.9	15.5	19.7	12.7	4.2	100.0
	대학 재학	(23)	52.2	13.0	13.0	17.4	4.3	100.0
	대졸 이상	(179)	57.0	18.4	12.3	10.1	2.2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1)	100.0	0.0	0.0	0.0	0.0	100.0
	자영업자	(44)	50.0	27.3	15.9	6.8	0.0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18)	38.9	33.3	27.8	0.0	0.0	100.0
	노무/운송/기능직	(13)	69.2	0.0	30.8	0.0	0.0	100.0
	사무직	(73)	54.8	20.5	8.2	15.1	1.4	100.0
	관리/전문직	(40)	62.5	12.5	7.5	12.5	5.0	100.0
	전업주부	(23)	65.2	4.3	21.7	4.3	4.3	100.0
	학생	(30)	60.0	10.0	10.0	16.7	3.3	100.0
	무직/은퇴/기타	(31)	35.5	16.1	19.4	19.4	9.7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	40.0	50.0	0.0	0.0	10.0	100.0
	100-199 만원	(20)	40.0	10.0	40.0	10.0	0.0	100.0
	200-299 만원	(40)	65.0	5.0	15.0	15.0	0.0	100.0
	300-399 만원	(45)	48.9	17.8	13.3	13.3	6.7	100.0
	400-499 만원	(36)	61.1	11.1	11.1	16.7	0.0	100.0
	500-599만원	(26)	46.2	23.1	19.2	7.7	3.8	100.0
	600-699만원	(22)	40.9	45.5	4.5	9.1	0.0	100.0
	700만원 이상	(53)	60.4	13.2	15.1	7.5	3.8	100.0
	모름/무응답	(21)	61.9	14.3	4.8	14.3	4.8	100.0
경제수준	상	(18)	55.6	27.8	16.7	0.0	0.0	100.0
	중	(204)	55.9	17.2	11.8	12.7	2.5	100.0
	하	(51)	47.1	13.7	23.5	9.8	5.9	100.0
혼인상태	미혼	(18)	55.6	27.8	16.7	0.0	0.0	100.0
	기혼	(204)	55.9	17.2	11.8	12.7	2.5	100.0
	기타	(51)	47.1	13.7	23.5	9.8	5.9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152)	63.8	13.8	13.8	6.6	2.0	100.0
	보통	(100)	45.0	21.0	14.0	16.0	4.0	100.0
	좋지 않은 편	(21)	28.6	23.8	19.0	23.8	4.8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118)	63.6	16.9	11.0	6.8	1.7	100.0
	보통	(115)	52.2	16.5	13.9	13.9	3.5	100.0
	좋지 않은 편	(40)	32.5	20.0	25.0	17.5	5.0	100.0

4.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받은 상담기관

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그림 3-2-4〉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받은 상담기관

(Base: 정신의료기관외 상담기관 도움, N=123, 단위: %)



전체

-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정신의료기관 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심리지원센터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상담기관’ 및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상담기관’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20.3%), ‘1577-0199 정신건강 상담전화’(17.1%), ‘기타’(11.4%)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받은 상담기관에 대해 ‘심리지원센터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상담기관’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0.9%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여자(33.3%), △20대(44.1%), △대졸 이상(33.7%), △무직/은퇴/기타(45.0%)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한편,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상담기관’이라는 응답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여자(34.7%), △서남권(35.0%) 및 도심권(34.8%), △고졸 이하(38.9%), △판매/영업/서비스직(66.7%), △미혼(50.0%)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응답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남자(21.6%), △15-19세(36.4%), △도심권(62.5%), △고졸 이하(27.8%), △100-199만원(33.3%)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2-4〉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받은 상담기관

(단위 : %)

Base=정신의료기관외 상담기관 도움	사례수 (명)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센터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상담기관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상담기관	1577-0199 정신건강 상담전화	기타
▣ 전체 ▣	(123)	20.3	30.9	30.9	17.1	11.4
성별						
남자	(51)	21.6	27.5	25.5	23.5	13.7
여자	(72)	19.4	33.3	34.7	12.5	9.7
연령						
15-19세	(11)	36.4	9.1	45.5	9.1	18.2
20대	(34)	23.5	44.1	14.7	20.6	11.8
30대	(26)	15.4	34.6	34.6	15.4	7.7
40대	(25)	16.0	24.0	40.0	20.0	8.0
50대	(25)	20.0	28.0	32.0	16.0	12.0
60-64세	(2)	0.0	0.0	50.0	0.0	50.0
지역						
도심권	(8)	62.5	25.0	12.5	12.5	12.5
동북권	(34)	14.7	35.3	32.4	20.6	11.8
서북권	(18)	16.7	33.3	22.2	27.8	11.1
서남권	(40)	25.0	25.0	35.0	7.5	15.0
동남권	(23)	8.7	34.8	34.8	21.7	4.3
학력						
고졸 이하	(18)	27.8	27.8	38.9	11.1	11.1
대학 재학	(16)	18.8	18.8	12.5	18.8	31.3
대졸 이상	(89)	19.1	33.7	32.6	18.0	7.9
직업						
자영업자	(14)	21.4	35.7	7.1	21.4	14.3
판매/영업/서비스직	(9)	11.1	11.1	66.7	0.0	22.2
노무/운송/기능직	(2)	50.0	0.0	0.0	50.0	0.0
사무직	(25)	20.0	40.0	28.0	24.0	4.0
관리/전문직	(9)	0.0	33.3	44.4	22.2	11.1
전업주부	(21)	14.3	28.6	47.6	9.5	4.8
학생	(23)	30.4	17.4	26.1	17.4	21.7
무직/은퇴/기타	(20)	25.0	45.0	20.0	15.0	1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	0.0	50.0	25.0	0.0	25.0
100-199 만원	(12)	33.3	50.0	25.0	25.0	8.3
200-299 만원	(14)	21.4	35.7	28.6	7.1	7.1
300-399 만원	(16)	25.0	25.0	31.3	12.5	18.8
400-499 만원	(19)	26.3	21.1	31.6	15.8	15.8
500-599만원	(14)	21.4	14.3	35.7	14.3	14.3
600-699만원	(6)	16.7	50.0	16.7	0.0	16.7
700만원 이상	(28)	10.7	28.6	32.1	25.0	7.1
모름/무응답	(10)	20.0	40.0	40.0	30.0	0.0
경제수준						
상	(10)	0.0	20.0	50.0	20.0	10.0
중	(94)	18.1	30.9	29.8	17.0	11.7
하	(19)	42.1	36.8	26.3	15.8	10.5
혼인상태						
미혼	(10)	0.0	20.0	50.0	20.0	10.0
기혼	(94)	18.1	30.9	29.8	17.0	11.7
기타	(19)	42.1	36.8	26.3	15.8	10.5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77)	22.1	28.6	29.9	18.2	7.8
보통	(39)	12.8	35.9	28.2	17.9	17.9
좋지 않은 편	(7)	42.9	28.6	57.1	0.0	14.3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58)	17.2	27.6	34.5	13.8	12.1
보통	(47)	21.3	29.8	29.8	21.3	8.5
좋지 않은 편	(18)	27.8	44.4	22.2	16.7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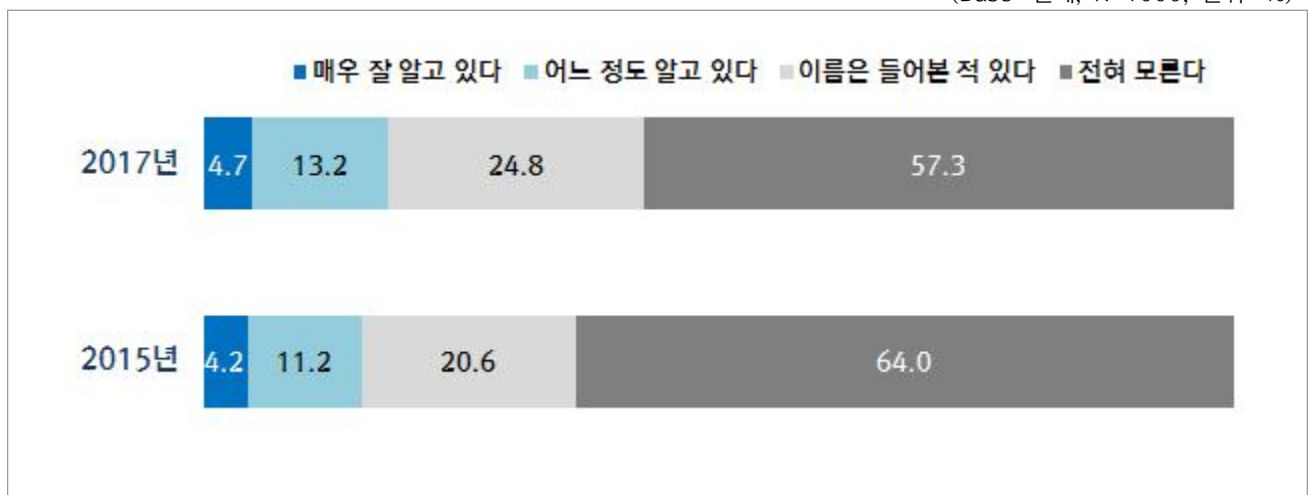
Ⅲ. 서울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1.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지도

문] 선생님께서는 보건소나 구청 등에 위치하여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알고 계십니까?

〈그림 3-3-1〉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지도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보건소나 구청 등에 위치하여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인지’(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한다는 응답 비율은 42.7%인 반면, ‘비인지’(전혀 모른다) 응답 비율은 57.3%임.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인지도2)는 2011년 29.3%, 2013년 28.1%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5년 이후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2017년 조사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지도가 42.7%로, 2015년 대비 6.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증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에 대해 ‘인지’라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42.7%로 학력 및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여자(46.2%), △60-64세(54.7%), △도심권(50.9%), △100-199만원(56.1%)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2) 2011년~2013년 조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인지도’는 ‘아주 잘 안다 + 이름은 들어보았다’, ‘비인지도’는 ‘잘 모른다 + 처음 듣는 이름이다’ 문항으로 구성됨.

- 반면, ‘비인지’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7.3%로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남자(60.9%), △30대(63.1%), △동남권(60.6%), △노무/운송/기능직(67.5%)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3-1〉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인지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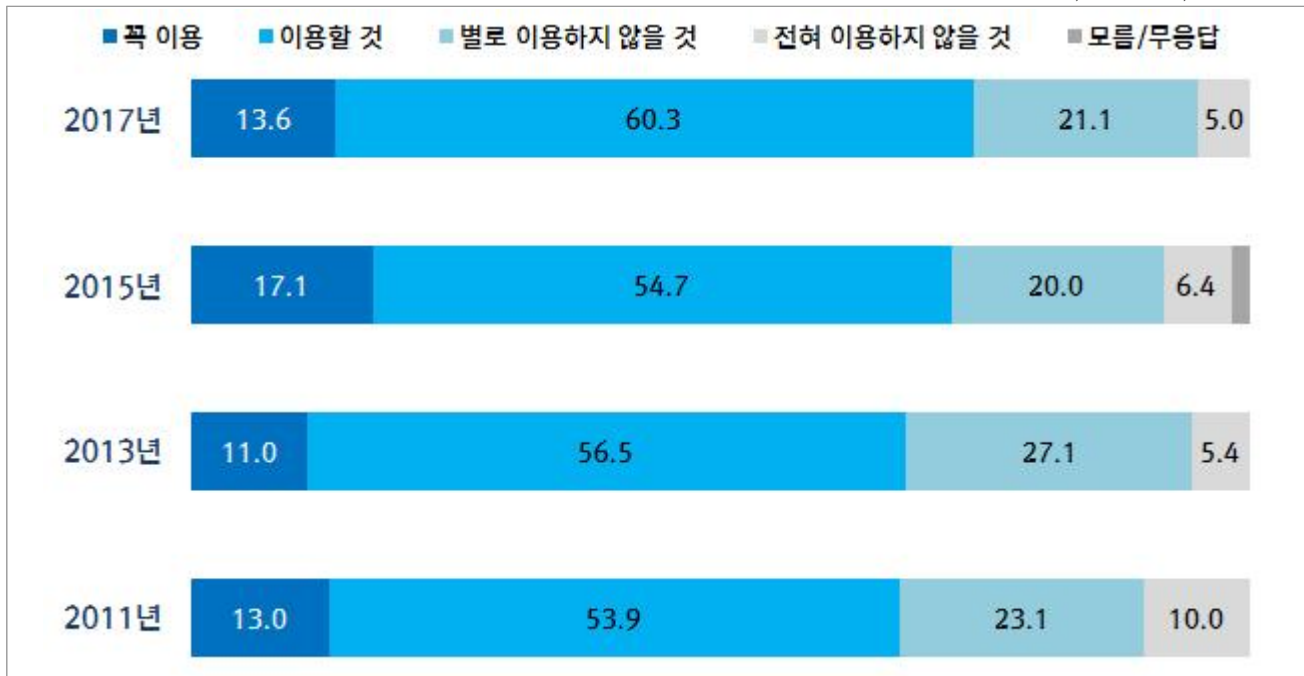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	인지(①~③)	전혀 모른다	비인지(④)	계
▣ 전체 ▣	(1,000)	4.7	13.2	24.8	42.7	57.3	57.3	100.0
성별								
남자	(496)	3.2	11.9	24.0	39.1	60.9	60.9	100.0
여자	(504)	6.2	14.5	25.6	46.2	53.8	53.8	100.0
연령								
15-19세	(58)	1.7	6.9	37.9	46.6	53.4	53.4	100.0
20대	(200)	3.0	13.5	23.5	40.0	60.0	60.0	100.0
30대	(217)	1.8	12.0	23.0	36.9	63.1	63.1	100.0
40대	(226)	4.4	13.3	19.9	37.6	62.4	62.4	100.0
50대	(213)	7.5	14.1	29.1	50.7	49.3	49.3	100.0
60-64세	(86)	11.6	17.4	25.6	54.7	45.3	45.3	100.0
지역								
도심권	(57)	3.5	21.1	26.3	50.9	49.1	49.1	100.0
동북권	(312)	3.5	14.7	25.3	43.6	56.4	56.4	100.0
서북권	(120)	3.3	8.3	29.2	40.8	59.2	59.2	100.0
서남권	(295)	6.1	13.2	24.1	43.4	56.6	56.6	100.0
동남권	(216)	5.6	11.6	22.2	39.4	60.6	60.6	100.0
학력								
고졸 이하	(211)	6.6	9.0	30.3	46.0	54.0	54.0	100.0
대학 재학	(87)	2.3	12.6	27.6	42.5	57.5	57.5	100.0
대졸 이상	(702)	4.4	14.5	22.8	41.7	58.3	58.3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0.0	100.0	0.0	100.0	0.0	0.0	100.0
자영업자	(119)	8.4	13.4	21.0	42.9	57.1	57.1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6)	1.5	15.2	27.3	43.9	56.1	56.1	100.0
노무/운송/기능직	(40)	2.5	12.5	17.5	32.5	67.5	67.5	100.0
사무직	(267)	3.0	9.7	22.1	34.8	65.2	65.2	100.0
관리/전문직	(106)	3.8	19.8	27.4	50.9	49.1	49.1	100.0
전업주부	(158)	7.0	16.5	27.2	50.6	49.4	49.4	100.0
학생	(126)	2.4	7.9	31.7	42.1	57.9	57.9	100.0
무직/은퇴/기타	(116)	7.8	13.8	23.3	44.8	55.2	55.2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	3.8	19.2	7.7	30.8	69.2	69.2	100.0
100-199 만원	(66)	4.5	19.7	31.8	56.1	43.9	43.9	100.0
200-299 만원	(129)	3.9	7.8	28.7	40.3	59.7	59.7	100.0
300-399 만원	(156)	8.3	12.8	26.9	48.1	51.9	51.9	100.0
400-499 만원	(152)	4.6	13.2	25.0	42.8	57.2	57.2	100.0
500-599만원	(131)	3.1	15.3	19.1	37.4	62.6	62.6	100.0
600-699만원	(78)	3.8	12.8	26.9	43.6	56.4	56.4	100.0
700만원 이상	(192)	4.2	14.1	23.4	41.7	58.3	58.3	100.0
모름/무응답	(70)	4.3	10.0	24.3	38.6	61.4	61.4	100.0
경제수준								
상	(75)	2.7	12.0	26.7	41.3	58.7	58.7	100.0
중	(753)	5.2	13.4	24.0	42.6	57.4	57.4	100.0
하	(172)	3.5	12.8	27.3	43.6	56.4	56.4	100.0
혼인상태								
미혼	(75)	2.7	12.0	26.7	41.3	58.7	58.7	100.0
기혼	(753)	5.2	13.4	24.0	42.6	57.4	57.4	100.0
기타	(172)	3.5	12.8	27.3	43.6	56.4	56.4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07)	5.8	13.3	25.0	44.2	55.8	55.8	100.0
보통	(337)	3.6	13.9	24.0	41.5	58.5	58.5	100.0
좋지 않은 편	(56)	0.0	7.1	26.8	33.9	66.1	66.1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54)	4.8	12.1	25.6	42.5	57.5	57.5	100.0
보통	(404)	5.4	14.1	24.3	43.8	56.2	56.2	100.0
좋지 않은 편	(142)	2.1	14.1	23.9	40.1	59.9	59.9	100.0

2.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의향

문] 정신건강증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스트레스, 우울증, 음주,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등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본인이나 가족을 위하여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림 3-3-2〉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의향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정신건강증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스트레스, 우울증, 음주,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등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을 위하여 ‘이용 의향이 있다’(꼭 이용하고 싶다 + 이용할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은 73.9%이며, 특히 ‘꼭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13.6%임.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이용의향’(꼭 이용하고 싶다 + 이용할 것 같다) 비율은 2011년 66.9%, 2013년 67.5%, 2015년 71.8%, 2017년 73.9%로, 지속적으로 이용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증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의향에 대해 ‘이용 의향이 있다’(꼭 이용하고 싶다 + 이용할 것 같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3.9%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여자(78.4%), △50대(76.5%), △서남권(79.3%), △고졸 이하(74.9%), △300-399만원(78.8%)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반면, ‘이용 의향이 없다’(별로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26.1%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남자(30.6%), △15~19세(31.0%), △서북권(31.7%), △대학 재학(33.3%), △학생(37.3%), △미혼(38.7%)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3-2〉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의향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꼭 이용하고 싶다	이용할 것 같다	①+②	별로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③+④	계
▣ 전체 ▣	(1,000)	13.6	60.3	73.9	21.1	5.0	26.1	100.0
성별								
남자	(496)	12.1	57.3	69.4	23.6	7.1	30.6	100.0
여자	(504)	15.1	63.3	78.4	18.7	3.0	21.6	100.0
연령								
15~19세	(58)	3.4	65.5	69.0	29.3	1.7	31.0	100.0
20대	(200)	10.0	61.5	71.5	22.5	6.0	28.5	100.0
30대	(217)	14.7	59.4	74.2	21.7	4.1	25.8	100.0
40대	(226)	13.3	61.5	74.8	19.9	5.3	25.2	100.0
50대	(213)	16.9	59.6	76.5	18.3	5.2	23.5	100.0
60~64세	(86)	18.6	54.7	73.3	20.9	5.8	26.7	100.0
지역								
도심권	(57)	21.1	56.1	77.2	17.5	5.3	22.8	100.0
동북권	(312)	11.9	60.6	72.4	21.2	6.4	27.6	100.0
서북권	(120)	12.5	55.8	68.3	25.0	6.7	31.7	100.0
서남권	(295)	14.6	64.7	79.3	16.9	3.7	20.7	100.0
동남권	(216)	13.4	57.4	70.8	25.5	3.7	29.2	100.0
학력								
고졸 이하	(211)	15.2	59.7	74.9	20.9	4.3	25.1	100.0
대학 재학	(87)	6.9	59.8	66.7	26.4	6.9	33.3	100.0
대졸 이상	(702)	14.0	60.5	74.5	20.5	5.0	25.5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자영업자	(119)	17.6	52.1	69.7	22.7	7.6	30.3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6)	19.7	63.6	83.3	15.2	1.5	16.7	100.0
노무/운송/기능직	(40)	7.5	70.0	77.5	20.0	2.5	22.5	100.0
사무직	(267)	13.1	61.0	74.2	20.6	5.2	25.8	100.0
관리/전문직	(106)	9.4	67.9	77.4	17.0	5.7	22.6	100.0
전업주부	(158)	17.7	58.2	75.9	21.5	2.5	24.1	100.0
학생	(126)	7.9	54.8	62.7	30.2	7.1	37.3	100.0
무직/은퇴/기타	(116)	13.8	62.9	76.7	18.1	5.2	23.3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	11.5	57.7	69.2	23.1	7.7	30.8	100.0
100~199 만원	(66)	16.7	57.6	74.2	19.7	6.1	25.8	100.0
200~299 만원	(129)	8.5	68.2	76.7	21.7	1.6	23.3	100.0
300~399 만원	(156)	18.6	60.3	78.8	16.0	5.1	21.2	100.0
400~499 만원	(152)	17.8	59.9	77.6	18.4	3.9	22.4	100.0
500~599만원	(131)	9.2	65.6	74.8	19.8	5.3	25.2	100.0
600~699만원	(78)	10.3	57.7	67.9	26.9	5.1	32.1	100.0
700만원 이상	(192)	13.5	56.3	69.8	24.5	5.7	30.2	100.0
모름/무응답	(70)	12.9	54.3	67.1	24.3	8.6	32.9	100.0
경제수준								
상	(75)	16.0	45.3	61.3	29.3	9.3	38.7	100.0
중	(753)	13.1	61.2	74.4	20.8	4.8	25.6	100.0
하	(172)	14.5	62.8	77.3	18.6	4.1	22.7	100.0
혼인상태								
미혼	(75)	16.0	45.3	61.3	29.3	9.3	38.7	100.0
기혼	(753)	13.1	61.2	74.4	20.8	4.8	25.6	100.0
기타	(172)	14.5	62.8	77.3	18.6	4.1	22.7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07)	14.8	60.3	75.1	19.6	5.3	24.9	100.0
보통	(337)	10.1	63.2	73.3	22.6	4.2	26.7	100.0
좋지 않은 편	(56)	21.4	42.9	64.3	28.6	7.1	35.7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54)	16.1	58.1	74.2	20.3	5.5	25.8	100.0
보통	(404)	11.6	61.9	73.5	21.0	5.4	26.5	100.0
좋지 않은 편	(142)	11.3	62.7	73.9	23.9	2.1	26.1	100.0

IV. 서울시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1. 정신질환자 수용도

1)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

문] 다음 불러드리는 의견을 듣고 각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

〈그림 3-4-1〉 정신질환자 수용도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정신질환자 수용도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91.3%이며, 특히 ‘정말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52.1%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91.3%로, 학력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여자(93.3%), △30대(95.4%), △600~699만원(94.9%), △미혼(92.0%)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4-1〉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1,000)	52.1	39.2	91.3	6.3	1.0	7.3	1.4	100.0
성별									
남자	(496)	46.0	43.3	89.3	7.3	1.6	8.9	1.8	100.0
여자	(504)	58.1	35.1	93.3	5.4	0.4	5.8	1.0	100.0
연령									
15-19세	(58)	27.6	56.9	84.5	12.1	3.4	15.5	0.0	100.0
20대	(200)	46.0	40.5	86.5	9.5	2.5	12.0	1.5	100.0
30대	(217)	54.4	41.0	95.4	3.7	0.9	4.6	0.0	100.0
40대	(226)	53.1	40.3	93.4	4.4	0.4	4.9	1.8	100.0
50대	(213)	60.6	32.4	93.0	6.1	0.0	6.1	0.9	100.0
60-64세	(86)	53.5	33.7	87.2	7.0	0.0	7.0	5.8	100.0
지역									
도심권	(57)	54.4	36.8	91.2	8.8	0.0	8.8	0.0	100.0
동북권	(312)	49.4	41.0	90.4	7.1	1.0	8.0	1.6	100.0
서북권	(120)	55.0	36.7	91.7	7.5	0.8	8.3	0.0	100.0
서남권	(295)	53.9	38.3	92.2	5.4	0.7	6.1	1.7	100.0
동남권	(216)	51.4	39.8	91.2	5.1	1.9	6.9	1.9	100.0
학력									
고졸 이하	(211)	51.2	35.5	86.7	8.5	0.9	9.5	3.8	100.0
대학 재학	(87)	35.6	51.7	87.4	8.0	3.4	11.5	1.1	100.0
대졸 이상	(702)	54.4	38.7	93.2	5.4	0.7	6.1	0.7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50.0	50.0	100.0	0.0	0.0	0.0	0.0	100.0
자영업자	(119)	52.9	37.8	90.8	5.9	1.7	7.6	1.7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6)	50.0	42.4	92.4	6.1	0.0	6.1	1.5	100.0
노무/운송/기능직	(40)	55.0	37.5	92.5	2.5	0.0	2.5	5.0	100.0
사무직	(267)	56.2	36.7	92.9	6.4	0.7	7.1	0.0	100.0
관리/전문직	(106)	52.8	40.6	93.4	6.6	0.0	6.6	0.0	100.0
전업주부	(158)	63.3	30.4	93.7	5.1	0.0	5.1	1.3	100.0
학생	(126)	32.5	53.2	85.7	9.5	4.0	13.5	0.8	100.0
무직/은퇴/기타	(116)	47.4	40.5	87.9	6.0	0.9	6.9	5.2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	57.7	34.6	92.3	0.0	3.8	3.8	3.8	100.0
100-199 만원	(66)	40.9	51.5	92.4	6.1	0.0	6.1	1.5	100.0
200-299 만원	(129)	50.4	38.0	88.4	8.5	0.8	9.3	2.3	100.0
300-399 만원	(156)	48.1	42.9	91.0	7.1	0.6	7.7	1.3	100.0
400-499 만원	(152)	56.6	37.5	94.1	3.9	1.3	5.3	0.7	100.0
500~599만원	(131)	52.7	40.5	93.1	5.3	0.8	6.1	0.8	100.0
600~699만원	(78)	59.0	35.9	94.9	3.8	1.3	5.1	0.0	100.0
700만원 이상	(192)	55.2	37.5	92.7	5.7	1.0	6.8	0.5	100.0
모름/무응답	(70)	45.7	32.9	78.6	14.3	1.4	15.7	5.7	100.0
경제수준									
상	(75)	62.7	29.3	92.0	5.3	2.7	8.0	0.0	100.0
중	(753)	51.7	40.2	91.9	6.2	0.8	7.0	1.1	100.0
하	(172)	49.4	39.0	88.4	7.0	1.2	8.1	3.5	100.0
혼인상태									
미혼	(75)	62.7	29.3	92.0	5.3	2.7	8.0	0.0	100.0
기혼	(753)	51.7	40.2	91.9	6.2	0.8	7.0	1.1	100.0
기타	(172)	49.4	39.0	88.4	7.0	1.2	8.1	3.5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07)	56.5	34.8	91.3	6.6	1.3	7.9	0.8	100.0
보통	(337)	44.8	46.6	91.4	5.6	0.3	5.9	2.7	100.0
중지 않은 편	(56)	48.2	42.9	91.1	7.1	1.8	8.9	0.0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54)	55.5	35.2	90.7	7.3	1.3	8.6	0.7	100.0
보통	(404)	49.8	41.3	91.1	5.7	1.0	6.7	2.2	100.0
중지 않은 편	(142)	47.9	45.8	93.7	4.9	0.0	4.9	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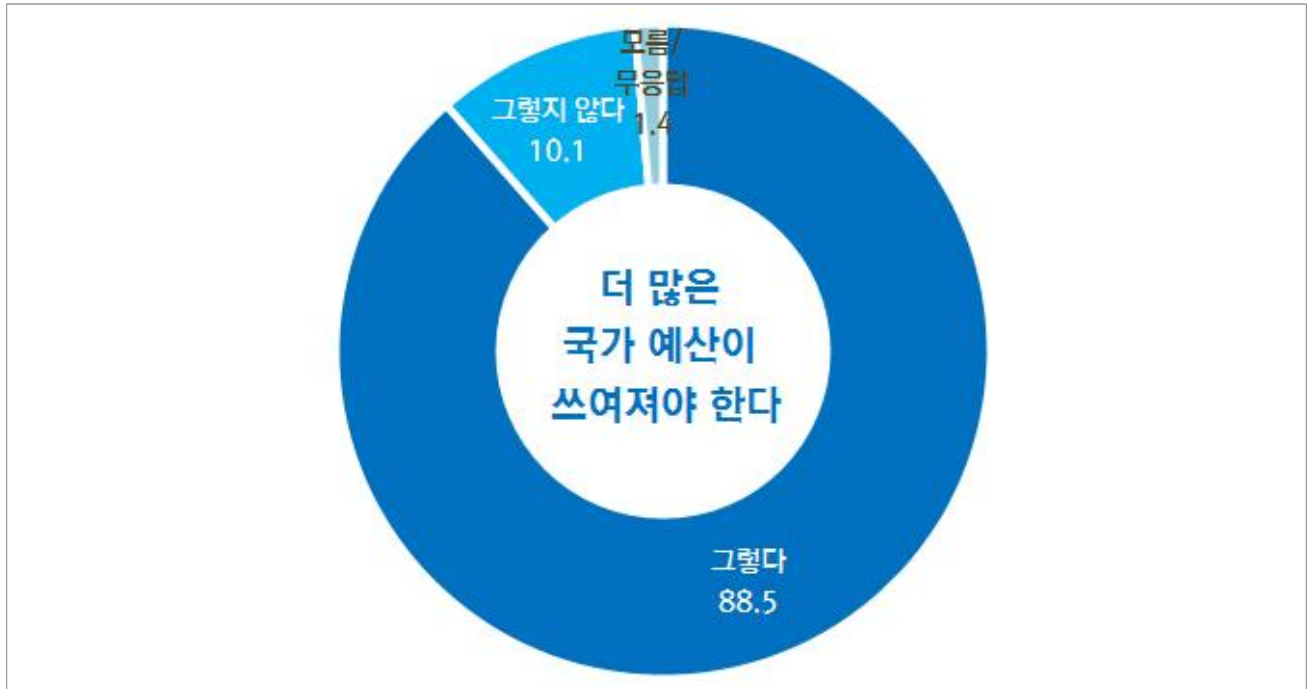
2)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

문] 다음 불러드리는 의견을 듣고 각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

〈그림 3-4-2〉 정신질환자 수용도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정신질환자 수용도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88.5%이며, 특히 ‘정말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46.1%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88.5%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여자(90.1%), △40대(91.2%), △도심권(91.2%), △400-499만원 (92.1%)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4-2〉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1,000)	46.1	42.4	88.5	8.3	1.8	10.1	1.4	100.0
성별									
남자	(496)	42.1	44.8	86.9	9.7	1.8	11.5	1.6	100.0
여자	(504)	50.0	40.1	90.1	6.9	1.8	8.7	1.2	100.0
연령									
15-19세	(58)	27.6	58.6	86.2	8.6	3.4	12.1	1.7	100.0
20대	(200)	43.5	44.5	88.0	10.0	2.0	12.0	0.0	100.0
30대	(217)	47.9	41.5	89.4	7.8	2.3	10.1	0.5	100.0
40대	(226)	46.9	44.2	91.2	6.2	1.3	7.5	1.3	100.0
50대	(213)	47.4	38.0	85.4	10.8	1.4	12.2	2.3	100.0
60-64세	(86)	54.7	34.9	89.5	4.7	1.2	5.8	4.7	100.0
지역									
도심권	(57)	52.6	38.6	91.2	3.5	3.5	7.0	1.8	100.0
동북권	(312)	42.0	48.1	90.1	7.4	1.6	9.0	1.0	100.0
서북권	(120)	51.7	37.5	89.2	7.5	2.5	10.0	0.8	100.0
서남권	(295)	49.2	37.6	86.8	10.2	1.0	11.2	2.0	100.0
동남권	(216)	43.1	44.4	87.5	8.8	2.3	11.1	1.4	100.0
학력									
고졸 이하	(211)	41.2	45.0	86.3	8.5	2.4	10.9	2.8	100.0
대학 재학	(87)	40.2	46.0	86.2	10.3	2.3	12.6	1.1	100.0
대졸 이상	(702)	48.3	41.2	89.5	8.0	1.6	9.5	1.0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자영업자	(119)	46.2	42.9	89.1	8.4	0.8	9.2	1.7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6)	45.5	40.9	86.4	10.6	1.5	12.1	1.5	100.0
노무/운송/기능직	(40)	40.0	50.0	90.0	5.0	2.5	7.5	2.5	100.0
사무직	(267)	45.7	41.9	87.6	9.4	1.9	11.2	1.1	100.0
관리/전문직	(106)	49.1	43.4	92.5	4.7	0.9	5.7	1.9	100.0
전업주부	(158)	54.4	34.8	89.2	8.9	1.3	10.1	0.6	100.0
학생	(126)	34.9	52.4	87.3	9.5	3.2	12.7	0.0	100.0
무직/은퇴/기타	(116)	46.6	40.5	87.1	6.9	2.6	9.5	3.4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	57.7	26.9	84.6	3.8	3.8	7.7	7.7	100.0
100-199 만원	(66)	53.0	37.9	90.9	7.6	0.0	7.6	1.5	100.0
200-299 만원	(129)	45.0	44.2	89.1	7.8	0.8	8.5	2.3	100.0
300-399 만원	(156)	39.1	44.9	84.0	11.5	2.6	14.1	1.9	100.0
400-499 만원	(152)	47.4	44.7	92.1	5.9	2.0	7.9	0.0	100.0
500~599만원	(131)	48.1	41.2	89.3	7.6	1.5	9.2	1.5	100.0
600~699만원	(78)	47.4	48.7	96.2	2.6	1.3	3.8	0.0	100.0
700만원 이상	(192)	50.5	38.0	88.5	8.9	1.6	10.4	1.0	100.0
모름/무응답	(70)	32.9	45.7	78.6	15.7	4.3	20.0	1.4	100.0
경제수준									
상	(75)	53.3	36.0	89.3	9.3	1.3	10.7	0.0	100.0
중	(753)	44.5	44.1	88.6	8.4	1.9	10.2	1.2	100.0
하	(172)	50.0	37.8	87.8	7.6	1.7	9.3	2.9	100.0
혼인상태									
미혼	(75)	53.3	36.0	89.3	9.3	1.3	10.7	0.0	100.0
기혼	(753)	44.5	44.1	88.6	8.4	1.9	10.2	1.2	100.0
기타	(172)	50.0	37.8	87.8	7.6	1.7	9.3	2.9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07)	46.3	43.5	89.8	7.2	1.6	8.9	1.3	100.0
보통	(337)	44.5	42.4	86.9	9.2	2.1	11.3	1.8	100.0
좋지 않은 편	(56)	53.6	30.4	83.9	14.3	1.8	16.1	0.0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54)	44.7	44.1	88.8	7.7	2.0	9.7	1.5	100.0
보통	(404)	47.0	42.1	89.1	8.2	1.7	9.9	1.0	100.0
좋지 않은 편	(142)	47.9	38.0	85.9	10.6	1.4	12.0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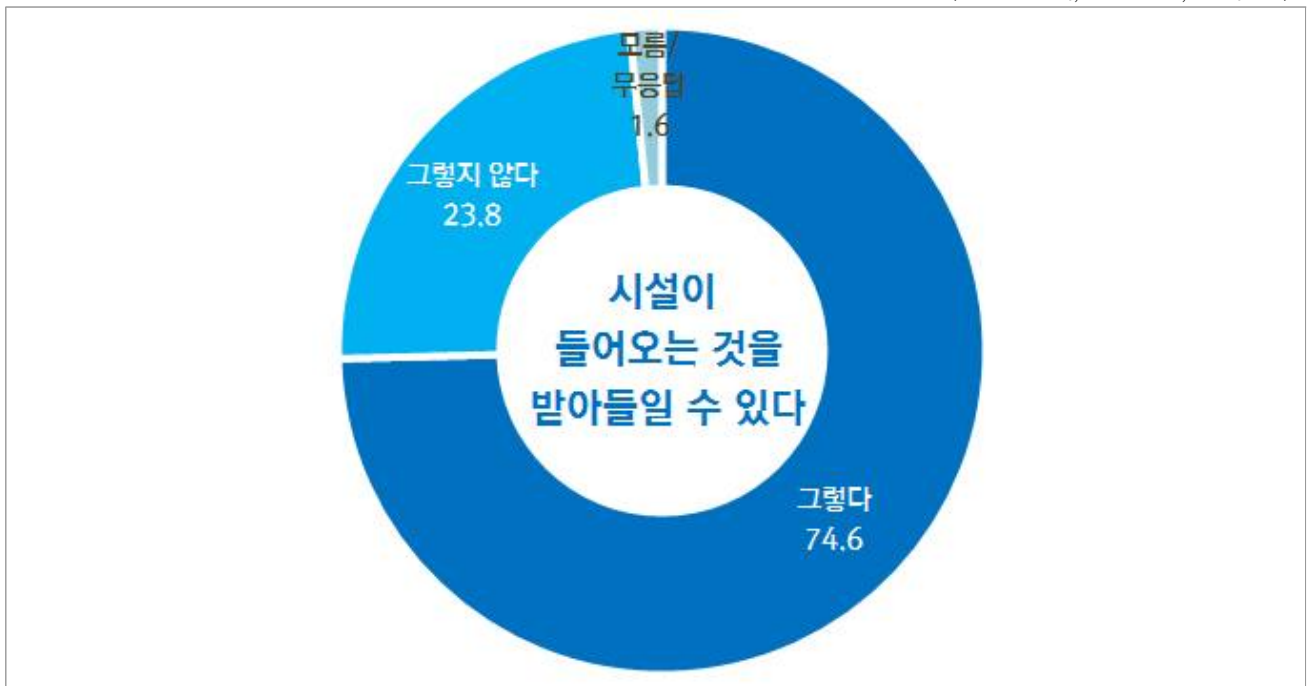
3)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문] 다음 불러드리는 의견을 듣고 각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3)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림 3-4-3〉 정신질환자 수용도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정신질환자 수용도와 관련하여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 비율은 74.6%이며, 특히 ‘정말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27.1%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4.6%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또한 △남자(77.0%), △15-19세(82.8%), △동북권(76.9%), △대학 재학(78.2%), △300-399만원(78.8%)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4-3〉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1,000)	27.1	47.5	74.6	19.0	4.8	23.8	1.6	100.0
성별									
남자	(496)	31.0	46.0	77.0	18.1	3.6	21.8	1.2	100.0
여자	(504)	23.2	49.0	72.2	19.8	6.0	25.8	2.0	100.0
연령									
15~19세	(58)	32.8	50.0	82.8	12.1	1.7	13.8	3.4	100.0
20대	(200)	32.0	45.5	77.5	19.5	3.0	22.5	0.0	100.0
30대	(217)	22.1	46.1	68.2	24.4	6.0	30.4	1.4	100.0
40대	(226)	22.6	50.9	73.5	19.5	4.9	24.3	2.2	100.0
50대	(213)	31.9	45.1	77.0	16.4	5.2	21.6	1.4	100.0
60~64세	(86)	24.4	51.2	75.6	14.0	7.0	20.9	3.5	100.0
지역									
도심권	(57)	35.1	35.1	70.2	24.6	5.3	29.8	0.0	100.0
동북권	(312)	24.0	52.9	76.9	17.6	4.2	21.8	1.3	100.0
서북권	(120)	29.2	45.8	75.0	15.0	7.5	22.5	2.5	100.0
서남권	(295)	30.8	44.7	75.6	19.0	3.7	22.7	1.7	100.0
동남권	(216)	23.1	47.7	70.8	21.8	5.6	27.3	1.9	100.0
학력									
고졸 이하	(211)	30.3	44.5	74.9	18.0	4.7	22.7	2.4	100.0
대학 재학	(87)	35.6	42.5	78.2	20.7	0.0	20.7	1.1	100.0
대졸 이상	(702)	25.1	49.0	74.1	19.1	5.4	24.5	1.4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50.0	50.0	100.0	0.0	0.0	0.0	0.0	100.0
자영업자	(119)	32.8	42.9	75.6	18.5	3.4	21.8	2.5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6)	27.3	56.1	83.3	12.1	3.0	15.2	1.5	100.0
노무/운송/기능직	(40)	35.0	50.0	85.0	10.0	2.5	12.5	2.5	100.0
사무직	(267)	23.2	47.2	70.4	24.0	4.9	28.8	0.7	100.0
관리/전문직	(106)	23.6	50.0	73.6	19.8	5.7	25.5	0.9	100.0
전업주부	(158)	19.0	46.8	65.8	22.8	8.9	31.6	2.5	100.0
학생	(126)	31.0	46.8	77.8	19.8	2.4	22.2	0.0	100.0
무직/은퇴/기타	(116)	37.1	46.6	83.6	8.6	4.3	12.9	3.4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	42.3	34.6	76.9	11.5	11.5	23.1	0.0	100.0
100~199 만원	(66)	39.4	37.9	77.3	15.2	6.1	21.2	1.5	100.0
200~299 만원	(129)	24.0	52.7	76.7	18.6	3.9	22.5	0.8	100.0
300~399 만원	(156)	24.4	54.5	78.8	16.7	3.8	20.5	0.6	100.0
400~499 만원	(152)	27.6	44.7	72.4	23.0	2.6	25.7	2.0	100.0
500~599만원	(131)	22.9	48.1	71.0	20.6	6.1	26.7	2.3	100.0
600~699만원	(78)	21.8	52.6	74.4	19.2	5.1	24.4	1.3	100.0
700만원 이상	(192)	28.1	45.3	73.4	19.3	5.7	25.0	1.6	100.0
모름/무응답	(70)	31.4	41.4	72.9	18.6	4.3	22.9	4.3	100.0
경제수준									
상	(75)	28.0	41.3	69.3	22.7	8.0	30.7	0.0	100.0
중	(753)	25.0	49.4	74.4	19.8	4.2	24.0	1.6	100.0
하	(172)	36.0	41.9	77.9	14.0	5.8	19.8	2.3	100.0
혼인상태									
미혼	(75)	28.0	41.3	69.3	22.7	8.0	30.7	0.0	100.0
기혼	(753)	25.0	49.4	74.4	19.8	4.2	24.0	1.6	100.0
기타	(172)	36.0	41.9	77.9	14.0	5.8	19.8	2.3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07)	27.2	47.6	74.8	18.9	4.3	23.2	2.0	100.0
보통	(337)	24.3	50.1	74.5	19.0	5.3	24.3	1.2	100.0
좋지 않은 편	(56)	42.9	30.4	73.2	19.6	7.1	26.8	0.0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54)	28.2	46.0	74.2	19.8	3.5	23.3	2.4	100.0
보통	(404)	23.3	51.5	74.8	19.6	5.0	24.5	0.7	100.0
좋지 않은 편	(142)	34.5	40.8	75.4	14.8	8.5	23.2	1.4	100.0

V. 서울시 정신건강 브랜드 인지도

1. 블루터치 인지도

문] 서울시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결핍되어가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블루터치”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림 3-5-1〉 블루터치 인지도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서울시의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7.7%인 반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91.6%임.
- 블루터치 인지도는 2011년 7.4%, 2013년 3.9%, 2015년 3.3%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7년은 이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비율인 7.7%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 블루터치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7%로, △여자(8.9%), △60-64세(12.8%), △동남권(9.3%), △대졸 이상(8.0%), △100만원 미만(19.2%) 등에서 비교적 높음.

- 반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91.6%로, △남자(93.1%), △15-19세(98.3%), △서남권(94.2%), △노무/운송/기능직(97.5%), △경제수준 하(94.8%) 등에서 비교적 높음.

〈표 3-5-1〉 블루터치 인지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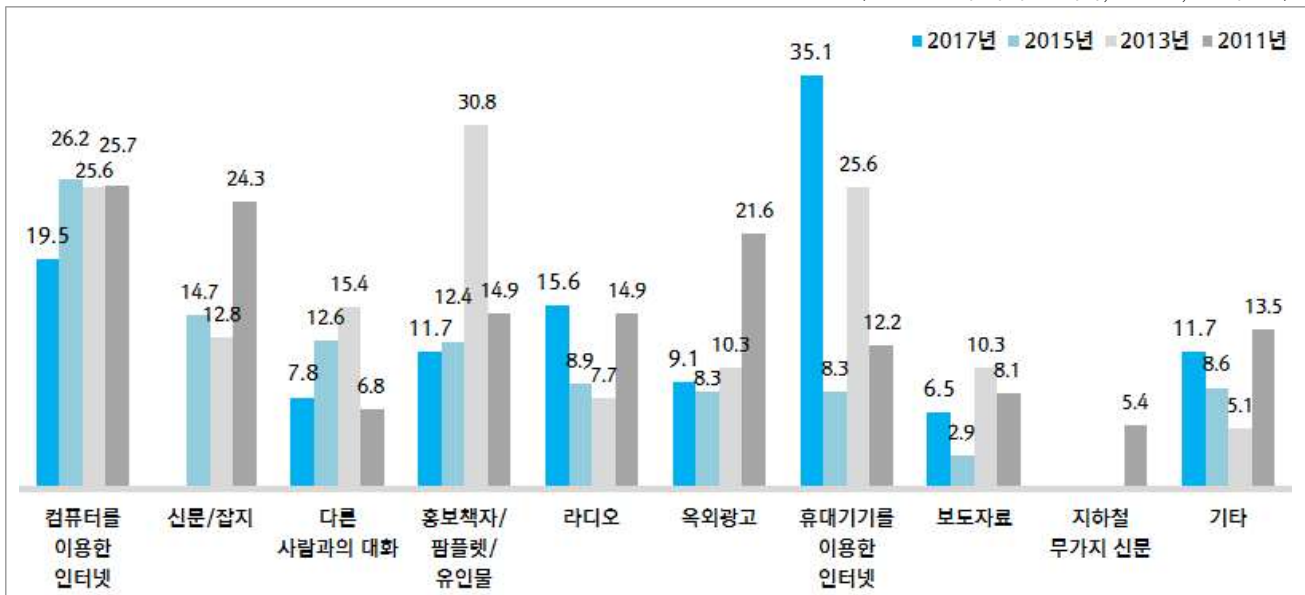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들어본 적이 있다	들어본 적이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1,000)	7.7	91.6	0.7	100.0
성별					
남자	(496)	6.5	93.1	0.4	100.0
여자	(504)	8.9	90.1	1.0	100.0
연령					
15-19세	(58)	1.7	98.3	0.0	100.0
20대	(200)	7.5	92.0	0.5	100.0
30대	(217)	7.8	90.8	1.4	100.0
40대	(226)	5.3	94.2	0.4	100.0
50대	(213)	9.9	89.7	0.5	100.0
60-64세	(86)	12.8	86.0	1.2	100.0
지역					
도심권	(57)	8.8	87.7	3.5	100.0
동북권	(312)	9.0	91.0	0.0	100.0
서북권	(120)	6.7	92.5	0.8	100.0
서남권	(295)	5.4	94.2	0.3	100.0
동남권	(216)	9.3	89.4	1.4	100.0
학력					
고졸 이하	(211)	7.6	91.9	0.5	100.0
대학 재학	(87)	5.7	94.3	0.0	100.0
대졸 이상	(702)	8.0	91.2	0.9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50.0	50.0	0.0	100.0
자영업자	(119)	8.4	91.6	0.0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6)	3.0	97.0	0.0	100.0
노무/운송/기능직	(40)	2.5	97.5	0.0	100.0
사무직	(267)	8.2	89.5	2.2	100.0
관리/전문직	(106)	13.2	86.8	0.0	100.0
전업주부	(158)	7.6	92.4	0.0	100.0
학생	(126)	4.8	95.2	0.0	100.0
무직/은퇴/기타	(116)	7.8	91.4	0.9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	19.2	80.8	0.0	100.0
100-199 만원	(66)	6.1	92.4	1.5	100.0
200-299 만원	(129)	6.2	93.0	0.8	100.0
300-399 만원	(156)	7.7	91.7	0.6	100.0
400-499 만원	(152)	8.6	90.8	0.7	100.0
500-599만원	(131)	5.3	93.9	0.8	100.0
600-699만원	(78)	9.0	91.0	0.0	100.0
700만원 이상	(192)	9.4	89.6	1.0	100.0
모름/무응답	(70)	4.3	95.7	0.0	100.0
경제수준					
상	(75)	6.7	92.0	1.3	100.0
중	(753)	8.4	90.8	0.8	100.0
하	(172)	5.2	94.8	0.0	100.0
혼인상태					
미혼	(75)	6.7	92.0	1.3	100.0
기혼	(753)	8.4	90.8	0.8	100.0
기타	(172)	5.2	94.8	0.0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07)	7.2	91.6	1.2	100.0
보통	(337)	8.0	92.0	0.0	100.0
좋지 않은 편	(56)	10.7	89.3	0.0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54)	7.5	91.4	1.1	100.0
보통	(404)	8.4	91.1	0.5	100.0
좋지 않은 편	(142)	6.3	93.7	0.0	100.0

2. 블루터치 인지경로

문] “블루터치”를 어떤 경로를 통해 듣거나 알게 되셨습니까? 해당 경로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림 3-5-2〉 블루터치 인지경로(중복응답)

(Base: 블루터치 인지자, N=77, 단위: %)



전체

- 블루터치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인지 경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스마트폰/테블릿 PC 등 휴대기기를 이용한 인터넷’이라는 응답이 35.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라디오’(19.5%), ‘라디오’(15.6%), ‘홍보책자/팸플렛/유인물’(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5년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26.2%), 2013년에는 ‘홍보책자/팸플렛/유인물’(30.8%), 2011년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25.7%)을 통해 블루터치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응답자 특성별

- 블루터치 인지경로에 대해 ‘스마트폰/테블릿 PC 등 휴대기기를 이용한 인터넷’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5.1%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여자(37.8%), △40대(50.0%), △대졸 이상(39.3%) 등에서 비교적 높음.
- 한편,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라디오’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19.5%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남자(21.9%), △30대(29.4%), △동북권 및 동남권(각 25.0%) 등에서 비교적 높음.

〈표 3-5-2〉 블루터치 인지경로(중복응답)

(단위 : %)

Base=블루터치 인지자	사례수 (명)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휴대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라디오	라디오	홍보책자/ 팜플렛/ 유인물	전광판/ 지하철/ 버스/간판 등 옥외광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	보도자료	기타
☐ 전체 ☐	(77)	35.1	19.5	15.6	11.7	9.1	7.8	6.5	11.7
성별									
남자	(32)	31.3	21.9	21.9	12.5	9.4	6.3	9.4	9.4
여자	(45)	37.8	17.8	11.1	11.1	8.9	8.9	4.4	13.3
연령									
15-19세	(1)	0.0	0.0	100.0	0.0	0.0	0.0	0.0	0.0
20대	(15)	20.0	20.0	26.7	13.3	13.3	6.7	6.7	6.7
30대	(17)	35.3	29.4	5.9	11.8	5.9	11.8	5.9	11.8
40대	(12)	50.0	16.7	16.7	16.7	16.7	8.3	8.3	8.3
50대	(21)	38.1	14.3	9.5	0.0	9.5	4.8	9.5	23.8
60-64세	(11)	36.4	18.2	18.2	27.3	0.0	9.1	0.0	0.0
지역									
도심권	(5)	60.0	0.0	0.0	20.0	0.0	0.0	0.0	20.0
동북권	(28)	35.7	25.0	17.9	10.7	17.9	0.0	10.7	7.1
서북권	(8)	37.5	12.5	12.5	25.0	12.5	0.0	0.0	0.0
서남권	(16)	37.5	12.5	25.0	0.0	0.0	12.5	0.0	18.8
동남권	(20)	25.0	25.0	10.0	15.0	5.0	20.0	10.0	15.0
학력									
고졸 이하	(16)	31.3	6.3	12.5	12.5	12.5	12.5	6.3	18.8
대학 재학	(5)	0.0	40.0	60.0	20.0	20.0	0.0	0.0	0.0
대졸 이상	(56)	39.3	21.4	12.5	10.7	7.1	7.1	7.1	10.7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1)	0.0	0.0	100.0	0.0	0.0	0.0	0.0	0.0
자영업자	(10)	50.0	10.0	10.0	0.0	0.0	0.0	30.0	10.0
판매/영업/서비스직	(2)	50.0	0.0	0.0	0.0	50.0	0.0	0.0	0.0
노무/운송/기능직	(1)	100.0	0.0	0.0	0.0	0.0	0.0	0.0	0.0
사무직	(22)	40.9	22.7	9.1	4.5	9.1	13.6	0.0	13.6
관리/전문직	(14)	35.7	21.4	28.6	28.6	14.3	7.1	7.1	0.0
전업주부	(12)	16.7	25.0	0.0	8.3	8.3	8.3	0.0	33.3
학생	(6)	0.0	33.3	50.0	16.7	0.0	0.0	16.7	0.0
무직/은퇴/기타	(9)	44.4	11.1	11.1	22.2	11.1	11.1	0.0	11.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	20.0	40.0	40.0	40.0	20.0	0.0	0.0	0.0
100-199 만원	(4)	50.0	0.0	25.0	25.0	0.0	0.0	0.0	0.0
200-299 만원	(8)	37.5	12.5	12.5	12.5	0.0	25.0	0.0	0.0
300-399 만원	(12)	33.3	8.3	25.0	0.0	8.3	8.3	0.0	25.0
400-499 만원	(13)	38.5	23.1	7.7	7.7	7.7	0.0	15.4	7.7
500-599만원	(7)	42.9	42.9	0.0	14.3	14.3	0.0	0.0	0.0
600-699만원	(7)	14.3	42.9	0.0	0.0	14.3	0.0	0.0	28.6
700만원 이상	(18)	44.4	11.1	22.2	11.1	11.1	11.1	11.1	16.7
모름/무응답	(3)	0.0	0.0	0.0	33.3	0.0	33.3	33.3	0.0
경제수준									
상	(5)	60.0	20.0	20.0	20.0	20.0	20.0	40.0	0.0
중	(63)	34.9	20.6	14.3	11.1	7.9	3.2	4.8	12.7
하	(9)	22.2	11.1	22.2	11.1	11.1	33.3	0.0	11.1
혼인상태									
미혼	(5)	60.0	20.0	20.0	20.0	20.0	20.0	40.0	0.0
기혼	(63)	34.9	20.6	14.3	11.1	7.9	3.2	4.8	12.7
기타	(9)	22.2	11.1	22.2	11.1	11.1	33.3	0.0	11.1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44)	40.9	20.5	15.9	9.1	9.1	6.8	6.8	11.4
보통	(27)	29.6	18.5	14.8	14.8	11.1	7.4	7.4	11.1
좋지 않은 편	(6)	16.7	16.7	16.7	16.7	0.0	16.7	0.0	16.7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34)	35.3	20.6	17.6	11.8	5.9	5.9	11.8	14.7
보통	(34)	35.3	17.6	11.8	11.8	14.7	5.9	2.9	11.8
좋지 않은 편	(9)	33.3	22.2	22.2	11.1	0.0	22.2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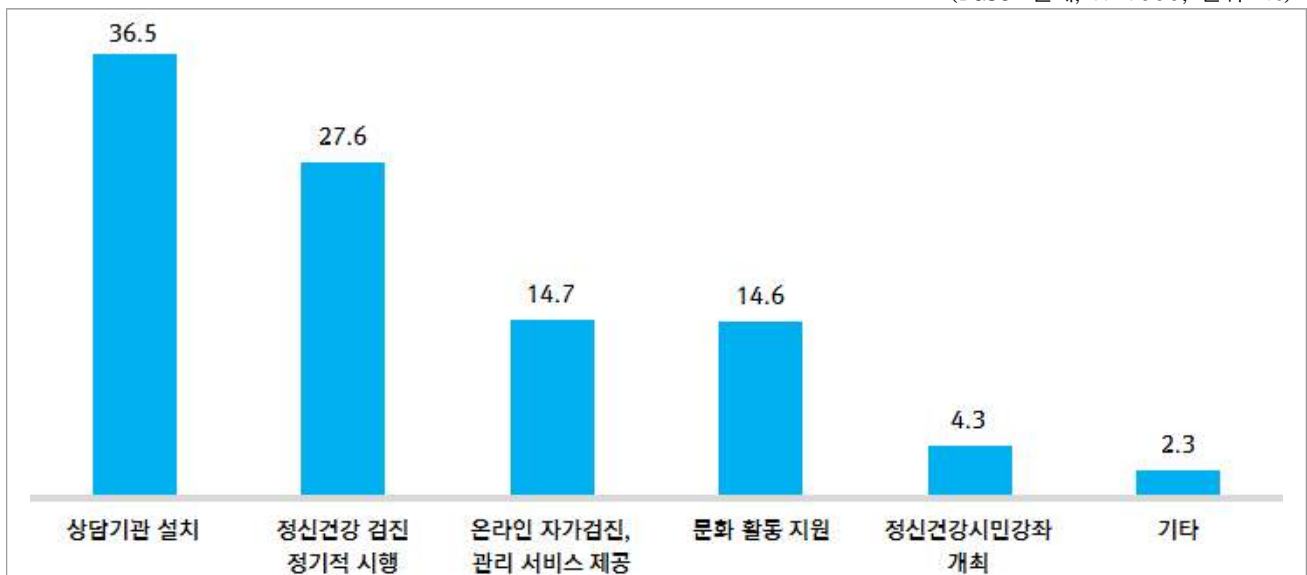
VI.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정책 요구도

1.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

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 3-6-1〉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기관을 설치’라는 응답 비율이 36.5%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신체건강검진처럼 보건소등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시행’(27.6%), ‘스스로 정신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검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14.7%),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음악회, 공연 등 문화 활동을 지원’(14.6%) 등의 순임.



응답자 특성별

-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기관을 설치’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6.5%로, △여자(38.9%), △40대(38.9%), △서북권(40.8%) 및 도심권(40.0%), △400~499만원(45.4%) 등에서 비교적 높음.

〈표 3-6-1〉 서울시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사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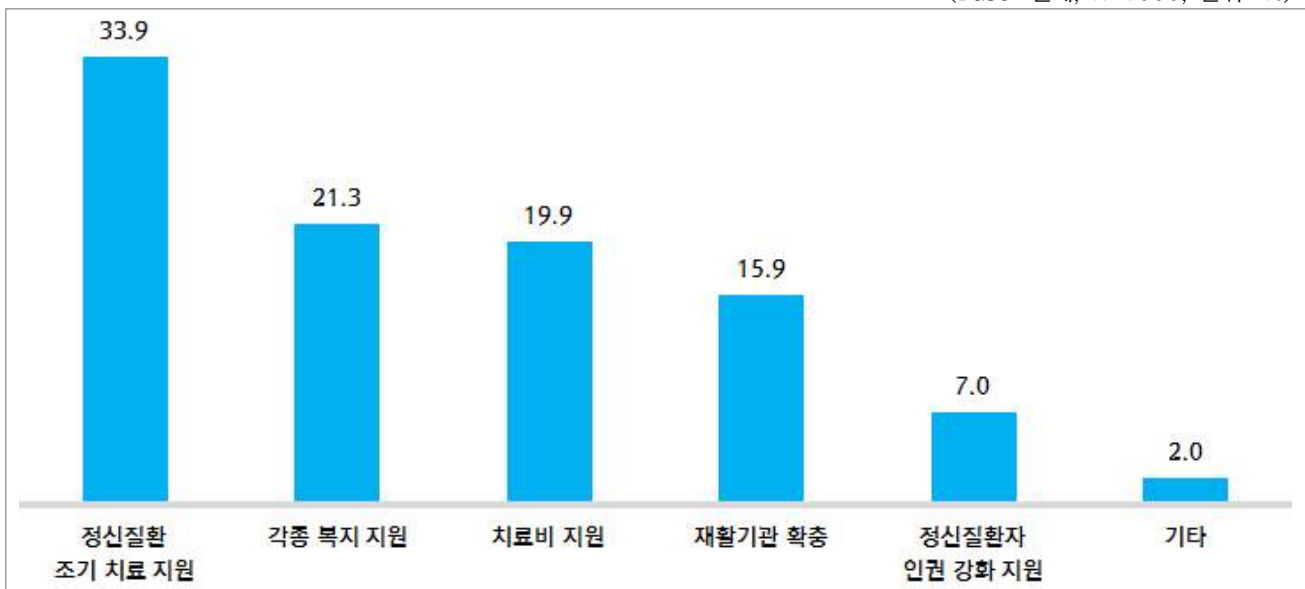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기관을 설치	신체건강검진처 럼 보건소등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시행	스스로 정신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검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음악회, 공연 등 문화 활동을 지원	정신건강 정보를 얻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시민 강좌를 개최	기타	계
□ 전체 □	(1,000)	36.5	27.6	14.7	14.6	4.3	2.3	100.0
성별								
남자	(496)	34.1	25.8	15.9	16.5	5.2	2.4	100.0
여자	(504)	38.9	29.4	13.5	12.7	3.4	2.2	100.0
연령								
15~19세	(58)	31.0	27.6	27.6	10.3	1.7	1.7	100.0
20대	(200)	34.0	25.5	18.5	15.5	5.0	1.5	100.0
30대	(217)	37.3	25.8	17.1	15.7	2.8	1.4	100.0
40대	(226)	38.9	30.5	9.7	12.4	4.9	3.5	100.0
50대	(213)	37.1	25.4	14.1	16.0	4.7	2.8	100.0
60~64세	(86)	36.0	34.9	5.8	15.1	5.8	2.3	100.0
지역								
도심권	(57)	40.4	31.6	14.0	10.5	3.5	0.0	100.0
동북권	(312)	35.6	27.9	17.0	12.2	5.8	1.6	100.0
서북권	(120)	40.8	30.0	11.7	11.7	4.2	1.7	100.0
서남권	(295)	33.9	30.2	14.6	15.3	3.1	3.1	100.0
동남권	(216)	38.0	21.3	13.4	19.9	4.2	3.2	100.0
학력								
고졸 이하	(211)	38.4	27.5	15.6	15.6	0.5	2.4	100.0
대학 재학	(87)	35.6	27.6	18.4	13.8	4.6	0.0	100.0
대졸 이상	(702)	36.0	27.6	14.0	14.4	5.4	2.6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50.0	0.0	50.0	0.0	0.0	0.0	100.0
자영업자	(119)	37.0	25.2	9.2	22.7	3.4	2.5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6)	27.3	31.8	9.1	21.2	4.5	6.1	100.0
노무/운송/기능직	(40)	35.0	32.5	12.5	12.5	2.5	5.0	100.0
사무직	(267)	35.2	29.6	14.6	16.5	3.7	0.4	100.0
관리/전문직	(106)	39.6	22.6	16.0	8.5	9.4	3.8	100.0
전업주부	(158)	41.8	25.9	15.8	10.1	3.8	2.5	100.0
학생	(126)	31.0	27.0	22.2	14.3	4.0	1.6	100.0
무직/은퇴/기타	(116)	40.5	29.3	12.9	11.2	3.4	2.6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	38.5	26.9	7.7	26.9	0.0	0.0	100.0
100~199 만원	(66)	34.8	30.3	15.2	18.2	0.0	1.5	100.0
200~299 만원	(129)	30.2	38.8	14.7	10.1	4.7	1.6	100.0
300~399 만원	(156)	37.8	26.9	16.0	16.7	1.3	1.3	100.0
400~499 만원	(152)	45.4	23.0	13.8	10.5	5.9	1.3	100.0
500~599만원	(131)	36.6	22.1	13.7	20.6	3.8	3.1	100.0
600~699만원	(78)	41.0	23.1	14.1	14.1	6.4	1.3	100.0
700만원 이상	(192)	34.4	27.6	15.1	12.0	7.3	3.6	100.0
모름/무응답	(70)	27.1	31.4	17.1	15.7	2.9	5.7	100.0
경제수준								
상	(75)	40.0	21.3	17.3	12.0	5.3	4.0	100.0
중	(753)	36.0	27.0	15.1	14.6	5.2	2.1	100.0
하	(172)	37.2	33.1	11.6	15.7	0.0	2.3	100.0
혼인상태								
미혼	(75)	40.0	21.3	17.3	12.0	5.3	4.0	100.0
기혼	(753)	36.0	27.0	15.1	14.6	5.2	2.1	100.0
기타	(172)	37.2	33.1	11.6	15.7	0.0	2.3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07)	37.1	28.5	13.8	14.5	4.6	1.5	100.0
보통	(337)	35.6	25.5	15.7	16.0	4.2	3.0	100.0
좋지 않은 편	(56)	35.7	30.4	17.9	7.1	1.8	7.1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54)	36.1	26.0	15.4	16.3	4.4	1.8	100.0
보통	(404)	35.4	29.0	15.1	13.4	5.0	2.2	100.0
좋지 않은 편	(142)	40.8	28.9	11.3	12.7	2.1	4.2	100.0

2.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

문] 서울시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신질환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3-6-2〉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

(Base: 전체, N=1000, 단위: %)



전체

- 서울시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정책으로 ‘정신질환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응답 비율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정신과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등 각종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21.3%),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19.9%), ‘정신과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입원시설이 아닌 거주지 내 재활기관을 이용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기관을 확충’(15.9%) 등의 순임.



응답자 특성별

-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에 대해 ‘정신질환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3.9%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또한 △여자(35.9%), △60-64세(46.5%), △도심권(36.8%), △700만원 이상(40.1%), △미혼(36.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36.9%) 등에서 높음.

〈표 3-6-2〉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정신질환을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정책	정신과질환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종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	정신과질환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거주지 내 재활기관을 이용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기관을 확충	정신과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인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기타	계
▣ 전체 ▣	(1,000)	33.9	21.3	19.9	15.9	7.0	2.0	100.0
성별								
남자	(496)	31.9	21.6	20.2	17.1	7.3	2.0	100.0
여자	(504)	35.9	21.0	19.6	14.7	6.7	2.0	100.0
연령								
15~19세	(58)	19.0	19.0	36.2	13.8	12.1	0.0	100.0
20대	(200)	22.5	23.5	27.5	15.0	9.5	2.0	100.0
30대	(217)	33.2	21.7	24.0	10.6	7.4	3.2	100.0
40대	(226)	39.4	18.6	18.6	15.0	7.1	1.3	100.0
50대	(213)	38.5	23.9	10.3	22.1	3.3	1.9	100.0
60~64세	(86)	46.5	17.4	8.1	19.8	5.8	2.3	100.0
지역								
도심권	(57)	36.8	31.6	14.0	10.5	3.5	3.5	100.0
동북권	(312)	33.7	22.4	17.0	17.9	7.1	1.9	100.0
서북권	(120)	30.8	22.5	25.8	14.2	6.7	0.0	100.0
서남권	(295)	33.9	19.3	20.3	14.9	8.8	2.7	100.0
동남권	(216)	35.2	19.0	21.8	16.7	5.6	1.9	100.0
학력								
고졸 이하	(211)	28.4	23.2	20.9	19.9	5.7	1.9	100.0
대학 재학	(87)	24.1	20.7	28.7	17.2	9.2	0.0	100.0
대졸 이상	(702)	36.8	20.8	18.5	14.5	7.1	2.3	100.0
직업								
농림어업 종사자	(2)	100.0	0.0	0.0	0.0	0.0	0.0	100.0
자영업자	(119)	37.0	23.5	10.1	20.2	5.9	3.4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6)	27.3	22.7	15.2	21.2	10.6	3.0	100.0
노무/운송/기능직	(40)	42.5	7.5	20.0	22.5	5.0	2.5	100.0
사무직	(267)	34.8	24.3	17.6	14.6	7.1	1.5	100.0
관리/전문직	(106)	35.8	17.0	23.6	13.2	7.5	2.8	100.0
전업주부	(158)	43.7	19.6	19.0	13.9	3.2	0.6	100.0
학생	(126)	21.4	19.0	31.7	15.9	10.3	1.6	100.0
무직/은퇴/기타	(116)	26.7	25.0	23.3	14.7	7.8	2.6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6)	19.2	19.2	15.4	30.8	11.5	3.8	100.0
100~199 만원	(66)	34.8	27.3	15.2	13.6	4.5	4.5	100.0
200~299 만원	(129)	34.9	18.6	15.5	19.4	10.1	1.6	100.0
300~399 만원	(156)	30.8	19.2	26.3	15.4	7.1	1.3	100.0
400~499 만원	(152)	36.8	19.1	23.0	11.8	7.2	2.0	100.0
500~599만원	(131)	35.1	19.1	24.4	13.7	6.9	0.8	100.0
600~699만원	(78)	26.9	32.1	23.1	9.0	7.7	1.3	100.0
700만원 이상	(192)	40.1	19.8	12.0	19.3	5.7	3.1	100.0
모름/무응답	(70)	25.7	27.1	22.9	18.6	4.3	1.4	100.0
경제수준								
상	(75)	36.0	22.7	17.3	21.3	2.7	0.0	100.0
중	(753)	34.4	20.3	20.6	15.3	8.0	1.5	100.0
하	(172)	30.8	25.0	18.0	16.3	4.7	5.2	100.0
혼인상태								
미혼	(75)	36.0	22.7	17.3	21.3	2.7	0.0	100.0
기혼	(753)	34.4	20.3	20.6	15.3	8.0	1.5	100.0
기타	(172)	30.8	25.0	18.0	16.3	4.7	5.2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07)	36.9	19.6	19.4	16.0	6.4	1.6	100.0
보통	(337)	28.2	24.3	21.7	16.0	8.0	1.8	100.0
좋지 않은 편	(56)	35.7	21.4	14.3	14.3	7.1	7.1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454)	33.7	20.0	22.5	16.5	6.2	1.1	100.0
보통	(404)	33.4	22.0	17.8	16.6	7.4	2.7	100.0
좋지 않은 편	(142)	35.9	23.2	17.6	12.0	8.5	2.8	100.0